

2015. 4.

《2015. 3. 25.(수) ~ 4. 1.(수),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 | |
|---------------------------|-----------|
| 제1장 연수개요 | 1 |
| ① 동기 및 배경 | 1 |
| ② 현 황 | 1 |
| ③ 내 용 | 2 |
| ④ 주요일정 | 2 |
| ⑤ 연수자 명단 | 4 |
| 제2장 연수국가 현황 | 5 |
| ① 연수국가 지도 | 5 |
| ② 핀란드 | 6 |
| ③ 에스토니아 | 11 |
| ④ 스웨덴 | 14 |
| 제3장 연수결과 | 19 |
| ① 헬싱키 청소년센터 방문 | 19 |
| ② 주핀란드 한국대사관 방문 간담회 | 26 |
| ③ 노인보호 및 요양시설 시찰 | 37 |
| ④ 친환경도시 에코비키 견학 | 44 |
| ⑤ 하마비 녹색주거단지 방문 | 50 |
| ⑥ 사회적기업 바스타 방문 | 57 |
| ⑦ 문화유산도시 등 문화 탐방 | 63 |
| 제4장 연수후기 | 66 |
| 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강영수 | 66 |
| ② 전북도청 사회복지과장 이송희 외 | 71 |
| 참고자료 | 77 |
| ① 방문국 지역 세부현황 | 77 |
| ② 기타 참고자료 | 88 |
| ③ 기관 등 방문 수집자료 목록 | 90 |

제1장 연수개요

1 동기 및 배경

-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재정건전성의 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등장
- 2015년 전북도 예산의 40% 이상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어 복지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양극화 해소 및 성장친화적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
- 선진 북유럽의 복지모델 이해와 개혁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구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벤치마킹을 통한 노인, 청소년 복지 및 친환경도시 등 환경·복지 분야 상호 협력방안 모색
-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사례 수집·분석

2 현 황

- 연수기간 : 2015. 3. 25(수) ~ 4. 1(수) / 6박 8일
- 방 문 국 :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 방 문 단 : 16명
 - 의 원(5) : 환경복지위원 5
 - 의원보좌(2) : 환경복지전문위원실 2
 - 정책연구(4) : 정책연구2팀 2, 총무담당관실 1, 의사담당관실 1
 - 도 청(5) : 환경보전과 1, 사회복지과 1, 정무기획과 1, 새만금수질개선과 2

3 내 용

- 선진 북유럽의 복지모델 이해와 개혁사례 비교시찰
- 핀란드 청소년 복지 및 노인 보호·요양시설 방문 국내시설과 비교분석
- 핀란드, 스웨덴 친환경에너지정책 등 우수사례 수집 및 동향파악
- 스웨덴 사회적기업의 고용과 복지 연계방안 벤치마킹
-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전 및 생태관광지 개발사례 파악

4 주요일정

| 일자 | 방문지역 | 일 정 | 비고 |
|------------------------|-------------------|--|-----|
| 2015 03. 25. (수) | 전주,인천 ⇒ 헬싱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회 집결 후 출발 ○ 인천 국제공항 집결·출발 ○ 헬싱키 도착 ○ 헬싱키 청소년센터 방문 (YOUTH CENTRE)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 1일차 |
| 03. 26. (목) | 헬싱키 ⇒ 탈 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주핀란드 한국대사관 방문 간담회 ○ 노인 보호 및 요양시설 시찰 (HELANDER-KODIT) ○ 실자라인 탑승 이동(헬싱키→탈린)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 2일차 |
| 03. 27. (금) | 탈 린 ⇒ 헬싱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도시 탈린 방문 ○ 실자라인 탑승 이동(탈린→헬싱키)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 3일차 |

| 일자 | 방문지역 | 일 정 | 비고 |
|----------------|---------------------------|---|-----|
| 03. 28. (토) | 헬싱키 ⇒ 스톡홀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친환경도시 에코비키 견학 (ECO - VIIKKI) ○ 실자라인 탑승 이동(헬싱키→스톡홀름) ○ 선내 석식 및 투숙 | 4일차 |
| 03. 29. (일) | 스톡홀름 ⇒ 옹살라, 스톡홀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상 조식 후 ○ 시청사, 옹살라 대학 등 문화탐방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 5일차 |
| 03. 30. (월) | 스톡홀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하마비 허스타드 녹색주거단지 방문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 6일차 |
| 03. 31. (화) | 스톡홀름 ⇒ 헬싱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사회적기업 바스타 견학 (BASTA) ○ 스톡홀름 공항 출발 ○ 헬싱키 도착 후 경유 ○ 헬싱키 공항 출발 | 7일차 |
| 04. 01. (수) | 인천,전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전주 도착 | 8일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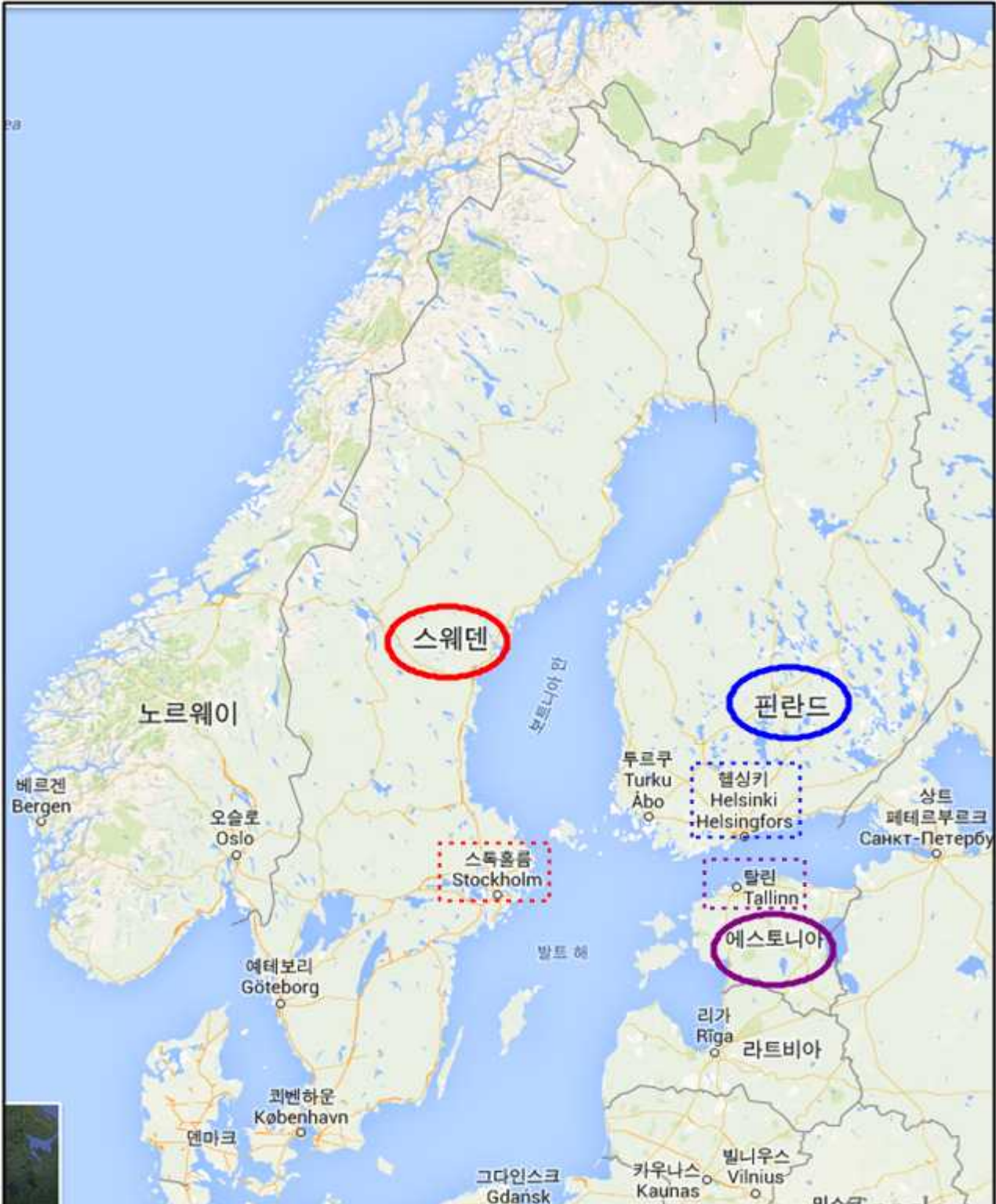
5

연수자 명단

| 소 속 | | 직 위 | 성 명 | 비 고 |
|--------------|-------------------|--------|-------|-----|
| 계 | | | 16명 | |
| 도의회 (11명) | 환경복지위원회 (5명) | 위원장 | 강 영 수 | |
| | | 위 원 | 김 영 배 | |
| | | “ | 이 상 현 | |
| | | “ | 정 호 윤 | |
| | | “ | 최 훈 열 | |
| | 환경복지전문위원실 (4명) | 전문위원 | 모 삼 중 | |
| | | 주 무 관 | 노 병 철 | |
| | | 정책2팀장 | 유 자 희 | |
| | | 주 무 관 | 하 병 탁 | |
| | 총무담당관실(1명) | 주 무 관 | 최 세 정 | |
| | 의사담당관실(1명) | 기록팀장 | 최 효 열 | |
| 도 (5명) | 환경보전과(1명) | 생활환경팀장 | 소 현 례 | |
| | 사회복지과(1명) | 과 장 | 이 송 희 | |
| | 정무기획과(1명) | 주 무 관 | 차 미 진 | |
| | 새만금수질개선과 (2명) | 과 장 | 허 영 덕 | |
| | | 직 원 | 곽 철 훈 | |

제2장 연수국가 현황

1 연수국가 지도



2 핀란드

□ 개요

- 화폐단위 : 엔(円・yen)
- GDP : 4조 9,015억불(IMF)
- 국명 : 핀란드 공화국(Republic of Finland)
- 수도 : 헬싱키(Helsinki, 59.6만명)
- 인구 : 540만명
- 면적 : 338,145km²(한반도의 약 1.5배, 삼림 69%, 호수 10%)
- 인종 : 핀란드인(93%), 스웨덴인(6%) 등
- 종교 : 루터복음교, 그리스정교 등
- 언어 : 핀란드어(93%), 스웨덴어(6%)
- 기후 : 북극 온대성 기후
- 국경일 : 12.6(독립기념일)
- 정부형태 : 의원집정부제(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총 200석, 임기 4년)
 - 연정 : 국민연합당(44석), 사민당(42석), 좌익연합(14석), 녹색당(10석), 스웨덴인당(9석), 기독교연맹(6석)
 - 야당 : 진정한 핀란드인당(39석), 중도당(35석), 무소속(1석)

□ 정치 제도

- 대통령
 - 직선제 :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1회)이 가능
 - 권한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정책 총괄권(단, EU관련은 행정부 소관), 군통수권, 총리 및 각료 임면권, 법률안 제출권, 거부권, 법률 공포권, 고위공무원 임명권, 사면권 등 권한을 보유
- 행정부

- 구성 및 임면 : 총선 직후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 과반수 찬성 득표 확보를 거쳐 총리를 임명, 17명의 각료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권한 : 내정과 EU 관련사항 등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당

- 의 회

- 단원제로 비례대표제 채택
- 2011.4월 총선결과 의석분포(총 200석)
- 국민연합당 44석, 사민당 42석, 진정한 핀란드인당 39석, 중도당 35석, 좌익연합 14석, 녹색당 10석, 스웨덴인당 9석, 기독교연맹 6석, 무소속 1석
- 역대 최다 여성 의원(86명) 배출

- 사법제도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 시 행정법원, 최고 행정법원, 특별 법원
- 헌법재판소가 없으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국회 헌법위원회에서 심사

- 지방행정조직 : Province(6), Municipality(452)

- 선거제도

- 선거방식 : 비례대표제
- 선거권, 피선거권 : 18세 이상
- 선거주기 : 의회(4년), 시 의회(4년)

□ 경제현황 (2009)

- 국내총생산액(GDP) : 1,713 억 유로
- GDP 성장률 : -8%
- 1인당 GDP : 32,088 유로
- 실업률 : 8.2 %

- 교역현황
 - 수출 : 437억 유로
 - 수입 : 451억 유로
- 화폐단위 : EURO (1유로 = 약1.4 미불, '10.11 현재)
- 물가상승률 : 0%
- 자연자원 : 목재, 구리, 아연, 철광석, 은 등

□ 교육제도

-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과정에 해당하며, 7세~16세 까지 학생들이 10학년과정을 이수함(1-9학년까지는 의무, 10학년은 선택)
 - 저학년 과정(1-6학년)에서는 학급담임교사로부터 모든 과목을 교육받으나, 고학년 과정(7-9학년)에서는 과목별 교사가 교육
 - 외국어과목의 비중이 높아, 3학년 때부터 공용어인 스웨덴어나 영어, 독일어 등 외국어 중에서 1개 언어를 선택하여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 외국어가 추가 교육되고 있음
 - 수업료, 교과서, 급식 등 모든 것이 무료이며, 학교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나, 국가보조금(100%까지 가능)을 지원받음
- 고등학교
 - 3년제의 일반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lukio) 과정과 2년-3년제의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 과정 등 두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 과정이 있음
 - 3년제 일반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진학 자격시험(marticulation)을 거쳐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학교 진학, 또는 취업의 길을 선택한다.
 -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 실업계고등학교(vocational school) 경우 실기와 연계된 2-3년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며, 직업학교를 이수한 후에는 취업을 하거나 직업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직업학교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1/3은 중앙정부, 나머지는 민간이 운영하나, 직업학교 운영비용의 70-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함.

- 대학교

- 핀란드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은 1640년 설립된 투르쿠 왕립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Turku)이며 헬싱키로 수도 이전과 함께 동 대학도 1828년 이전하여 오늘날 헬싱키 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의 전신이 되었다.
- 현재 핀란드에는 최대의 대학인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를 비롯한 10개의 종합대학교, 헬싱키 공과대학교를 비롯한 3개의 공과 대학교, 3개의 경제경영대학교(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헬싱키 예술·디자인 대학교를 비롯한 4개의 예술대학교 등 20개 대학교에 약 17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 석사과정 : 최소 5년(학사 취득 후 최소 2년)
- 1990년대 고등교육제도 개혁으로 직업과 관련된 특수교육기관들을 통합하여 1996년부터 직업전문대학(polytechnic)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29개의 전문대학에 약 7만5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전문대학(polytechnic)은 직업전문 지식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수학 기간은 통상 3.5-4년이다.
- 모든 대학교는 국립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나, 대학교 운영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 EU의 Bologna 교육개혁과정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 대학

과정이 3년 수학후 먼저 학사학위를 취득이후 석사과정(학사 취득후 최소 2년 추가 수학)을 수학하도록 개편되었다.

- 성인교육

- 1899년에 최초로 성인교육기관들이 설립된 이후, 일반교육, 사회교육, 직업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성인 교육기관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정당 및 노동조합들도 교육위원회를 두어 강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들은 수많은 스터디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이밖에 핀란드 전역에 130여개의 음악학교와 12개의 체육학교가 있으며, 방송통신학교(open university)도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함.
- 실업자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와 노동부 관할하에 직업교육 센터(job Center)를 두어 교육훈련, 여행경비, 숙식 등의 무료 제공 및 일일수당까지 지급하며, 이러한 직업교육 이수자는 매년 50만 명에 달하고 있음
- 특히, 1980-90년대 이후 직업환경과 노동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성인교육과정이 활성화되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1,000여개의 성인교육관련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 핀란드 교육에 대한 높은 평가

- 2000년, 2003년 OECD 회원국 중학교 학생(15세)을 대상으로 한 학습능력 평가 결과 핀란드 학생들이 독해력과 수학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부문에서 최상위(2000년 2위, 2003년 1위)를 기록, 핀란드 교육제도의 우수성을 과시하여 세계 각국에서 다수의 시찰단이 방문
-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National Board of Education)와 학계는 핀란드 교육의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해 2005년

3월 “Finland in PISA-studies-Reason behind the Results“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 교육평가원 등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 언론에 의하면 동 세미나 결과 핀란드 교육의 성공 배경은 우수한 교사 “Teachers, teachers, and teachers“로 요약되며, 어떻게 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것인지, 정치인들이 교육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 지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한다.

<한국과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 : 1973.8.24
 - 주핀란드 대사관 개설 : 1973.8월
 - 주한 핀란드대사관 개설 : 1978.11월
- 수출입 현황(2011년 한국 기준)
 - 수출 : 7.7억불, 수입 : 9.4억불
- 투자 현황(~09 누계, 신고기준)
 - 대핀 투자 : 21건, 338만불 (수출입은행)
 - 대한 투자 : 61건, 1.64억불 (지경부)
- 교민현황 : 약 412명(2011년)

3 에스토니아

□ 개요

- 국 명 : 에스토니아 공화국(Republic of Estonia)
- 위 치 : 발트해 연안(러시아 및 라트비아와 접경), 발트해 동부
- 면 적 : 45,227km² (한반도의 1/5) / 두산백과사전에는43,431km²
- 인 구 : 약 136만명
 - 에스토니아인 68%, 러시아인 26%, 우크라이나인 2%, 핀란드인 1%

- 수 도 : 탈린(약 40만명 거주), Tallinn은 “덴마크의 도시“라는 의미
- 종 교 : 루터교
- 국경일: 2. 24. (1918년 독립 선언)
- 기 후 : 1월 -2.4° , 7월 +19.1° (2004년 기준)
- 언 어(공용어): 에스토니아어 (어족: Finn-Ugrian)



□ 정치현황

- 정 체 : 공화제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Republic)
 - 대통령 : 현 Toomas Hendrik Ilves (2006.10.9 취임, 임기 5년)
 - 총 리 : Andrus Ansip(2005. 4 취임)
 - 의회 (Riigikogu): 101명(임기 4년)
- 주요정당 : Res Publica, Center Party, Reform Party, People’s Union 등
- 현 정부 주요정책
 - 사회 통합 강화 : 러시아계 시민들의 시민권 취득 촉진
 - 경제 정책 : 조세 감면을 통한 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
 - EU 신규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2004. 5. 1 가입)
 - NATO 등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강화 (2004. 3. 29 가입)
 - 인접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 노력
 - 국제평화 유지활동 참여
- 지방행정: 15 Counties, 202 Municipalities

□ 경제현황

- 주요자원 : 석유 혈암(Oil shale), 목재

- 주요산업 : 엔지니어링, 전자, 목재업, 섬유업, 정보통신업
- GDP: 110.7억 유로 ('06), 89억 유로('04)
 - GDP 구성비 : 제조업(18.3%), 운송·통신업(14.7%), 도·소매업(12.3%), 부동산·서비스(16.5%), 건설업(6.8%) 농업(2.7%) 등
- 1인당 국민총생산(GDP) : 9,384 유로 ('06), 6,583 유로('04), 3,870\$('03)
- 경제성장률 : 10.5 % ('06), 6.2%('04)
- 실업률 : 7.2%('06), 9.7%('04)
- 교역규모 : 수출 63억 유로, 수입 85억 유로 (2006년 기준)
- 주요 수출 대상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라트비아
- 주요 수입 대상국: 핀란드, 독일, 스웨덴, 러시아
- 화폐 및 환율 : 크룬, 1EUR=15.64 EEK(Estonian Kroon, '07.1.24 현재)
- 도로 및 철도망 : 도로 약30,300 km(포장도로 약 29,200km) 철도 968km

□ 교 육

- 의무교육 : 9년
- 주요대학 : Tartu University(1632년 개교)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1991.10.17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인사 교류
 - 1993. 9월 Mart Laar 총리 방한
 - 1995. 4월 정종욱 대통령 특사 에스토니아 방문
 - 1997. 7월 Leimann 경제장관 방한
- 한국과 에스토니아 경제 관계 (2006년 한국 통계, 단위 : 백만불)
 - 수출 57.0, 수입 17.5, 무역수지 39.5

- 의회구성 : 총349석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Carl XVI Gustaf 국왕 (1973.9 즉위)
 - 총 리 : Fredrik Reinfeldt (2010.9 선출, 보수당)
 - 부 총 리 : Jan Bjorklund(2010. 10 임명, 자유당)

□ 지방행정제도

- 조 직
 - 21개 주(county, Län)와 290개 군(municipality, Kommun)으로 구성 (1개 주당 평균 13.8개 군)
 - 주 의회 및 군 의회 의원선거는 매 4년, 의회(Riksdag) 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
 - 중앙정부가 6년 임기의 주지사(County Governor) 임명
- 지방 관할 업무
 - 보건, 위생, 의료(전체 예산의 80% 차지), 사회보장, 문화, 도로, 교통, 상하수도, 소방, 초중고교 교육 등
- 주요 기관
 - 주 의회(County Council)
 - 집행위원회(County Executive Committee)를 구성, 제반 의회 업무 조정
 - 주 정부(County Administrative Board)
 - 중앙정부가 임명한 주지사를 중심으로 역내 중앙정부의 대표 역할 수행
 - 지방 행정업무 전반 관할
 - 예산안 편성(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교부금, 지방세 등)
 - 군 정부 및 군 의회(Municipal Council)
 - 군내 제반 행정 사항 관할

-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 부여 및 감독 가능
 - 주민은 지방정부 결정사항에 대해 행정법원에 제소 가능
- 지방주민 투표제도(municipal referendum)
 -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지역내 유권자 5% 이상 요구시 의무적으로 실시

□ 경 제

- GDP : 5,432억불(1인당 GDP : \$ 40,808)
- GDP 성장률 : 4.3%
- 실업률 : 7.5%
- 교역 : 수출 1,967억불(기계, 제지, 금속, 화학) 수입 1,816억불(기계, 석유, 금속)

□ 사회복지 제도

-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의 대명사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cradle to grave)라는 표현대로 세계 제1의 복지국가임을 자처하였으나, 1980년대말 ~ 1990년대초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복지수준이 다소 낮아짐.
 - 기본목표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 주택, 기본 생필품 등에서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질병, 실업 등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재정적 지원 제공
 - 높은 누진과세와 각종 보조금 제도를 통해 각 계층의 수입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좁히고 공평한 행복권 부여
 - 1990년대초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수준이 다소 축소되

- 었으나 2000년대 경기호황으로 과거 복지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
- 1991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병가수당을 급여의 90% 수준에서 75-80%로 축소, 연금보험료 인상, 각종 연금혜택이 축소된 바 있음.
 - 연 혁
 - 1891년 제정된 국민건강 보호법을 시초로 1901년 직업상해보험, 1913년 보통연금, 1931년 병가수당 도입
 - 1932년이래 수년간을 제외하고 계속 집권해온 사민당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 확립
 - 1947년 국민기본 연금법 및 아동수당법 제정 이후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소득에 따른 차등연금제 및 병가혜택의 확대와 이후 출산보험, 탁아시설, 사회구호 제도로 급속히 발전
 - 복지재정 : 총 국가 예산중 약 1/3을 사회복지비로 지출
 - 사회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상해보험, 실업보험, 학업수당, 교육보조비 등
 - 연금제도
 - 국민기본연금, 퇴직연금, 아동연금(18세 미만 아동의 부모 사망시), 적응연금(배우자 사망시), 미망인 연금 등
 - 1999년 도입된 신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
 - 평생소득 개념에 기초한 소득연동 차등 연금제
 -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에게는 최소 소득 보장
 - 자신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연금제 도입
 - 조기퇴직 연령 인하(61세부터 가능)
 - 가족정책 : 개개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보장
 -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녀수당 지급
 - 자녀가 16세에 도달하면 학비보조금을 자녀에게 직접 지급
 - 주택정책 : 무주택자 또는 부양가족에 따른 주택보조비 지급

및 내집 마련 기회 부여

● 노인복지 정책

- 노령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인구의 약1/5이 노령층임.
- 연금제도와 노인 보건시설 운영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시행
-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예산은 GDP의 약 16%
- 노령층 수입원 비중 : 연금 85%, 기타 연금보험, 자산수익 등
- 거주지역 의사와 간호사가 노인을 위한 보건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노인환자를 위한 노인 병동 입원비를 부담

● 정부부처

- 보건사회부 : 사회복지 관련 입법 및 예산 담당
- 고용부 : 실업보험 담당
- 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 2005.1월부로 기존의 21개 주(county) 사회보험청과 사회보험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를 통합하여 설립
- 보건복지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 지역 단위 사회보험사무소에 대한 감독 업무

〈 한국과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59.3.11)
 - 63.7 주스웨덴대사관 개설
 - 73.7 주한스웨덴대사관 개설
 - ※ 스웨덴 의료단 169명, 한국전 당시 야전병원 지원
- 교역(11년, 한국기준, KITA)
 - 수입: 10.43억 불(휴대폰, 자동차, 철강관 등)
 - 수출: 21.43억 불(산업기계, 중장비, 의약품 등)

제3장 연수결과

1 헬싱키 청소년센터 방문

□ 방문목적

- 핀란드의 청소년 교육복지 시설현장 및 교육복지정책을 직접 체험, 선진적인 요소를 우리나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센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
- 청소년 복지 관련 정보 연구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효과적인 정책 개발 유도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3. 25(수) 15:20~17:30
- 장 소 : 헬싱키 청소년센터
- 면 담 자 : 소니아 마띠 (청소년센터 부소장)
- 내 용 : 센터 운영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토론, 주요 시설 방문, 기념품 전달 등

□ 주요내용

헬싱키 청소년센터 현황

- 대 표 자 : 시쁠라 이르마(Sippola Irma)
- 근무인원 : 11명(공무원 신분)
- 주 소 : Ostostie 4, 00940 Helsinki, FINLAND
- 기 구 : 헬싱키 시의회(청소년위원회)의 한 부서인 청소년부가 파견
- 홈페이지 : <http://www.hel.fi/hki/nk/en/youth+centres>

【청소년센터 부대표 소니아 미피 센터 시설 및 운영 현황 설명】

- 청소년센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은 헬싱키시에서 부담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됨
- 센터는 청소년사업부로서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즐기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
- 청소년사업부는 중앙부와 지역부서가 있으며, 헬싱키 청소년센터는 지역부에 해당하여 헬싱키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 청소년사업부는 탈선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센터로 끌어 들여 사회의 중요성과 학습 및 교육의 당위성을 느끼게 하는 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청소년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센터의 프로그램과 예산, 시설 등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임.
- 학생들은 크레딧카드를 무상으로 발급하여 주면 센터내의 모든 프로그램과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함.
- 13세 이상의 모든 학생들은 누구나 센터 이용이 가능하며, 3~9시까지 목공예, 탁구, 당구, 포켓볼, 롤러스케이트 등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친구도 만들고 일종의 소통의 장소 임.
- 센터내에는 학교폭력, 왕따 등 근절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 12명의 청소년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음.
- 청소년위원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청소년들과 대화의 장인 “루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헬싱키를 좀 더 밝고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함.
- 본 센터는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실내 스케이트장을 보유하고 있음. 지하 25m에 1km 규모의 화강암 동굴 형태의 방공호에 청소년 전용 실내 스케이트장과 헬스클럽 등을 운영

- 실내스케이트장은 원래 방공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핀란드 법상 의무적으로 방공호를 설치한 뒤 평상시 레저활동을 위해 사용하다 위험상황 발생시 24시간 내에 해당시설을 철수하고 있음
- 1년간 청소년 방문자수는 140만명, 공무원 방문자수는 350여명임
- 헬싱키시 50만명 중 청소년 인구는 3만명인데, 시청 공무원 중 청소년담당 공무원은 400명 규모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헬싱키시 7조원 규모 예산중 1%(700억)을 청소년 예산에 반영)

□ 질의답변

- 헬싱키 시장은 어떻게 선출하는지?
 - ↳ 헬싱키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시의회는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 ↳ 시장 및 시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책임을 짐
- 핀란드 청소년복지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대부터 심층적으로 발전하였음.
- 헬싱키 시내 복지시설 이용은 어떤 사람들이며, 시설은 몇 개인가?
 - ↳ 복지시설 주 이용은 10~17세
 - ↳ 핀란드 헬싱키의 청소년부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유일한 문화를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시설(공간시설)로 60여개가 있음.
- 체육시설, 청소년상담, 보호관찰소 등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는지?
 - ↳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곳은 없음. 단 유사한 청소년집은 한 곳 있음. 청소년센터가 청소년 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핀란드의 청소년은 몇 세까지 인가?
 - ↳ 청소년 관련법에서 29세까지로 규정되었음
 - * 한국(9~24세), 미국(16~24세), 중국(7~30세), 스위스(15~34세)
- 핀란드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면?
 - ↳ 15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고등학교와 직업학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동기부여가 부족한 학생들이 문제임
 - ↳ 그래서 발생하는 모범학생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 그리고 처지는 학생이 발생하여 지역별 양극화가 크며 편차도 큼
- 청소년위원회 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는가?
 - ↳ 5년전인 2010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센터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 ↳ 청소년센터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즐기면서 왕따 당하지 않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음. 그러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암벽타기 프로그램은 관련 부서에서 위험 등 이유로 해결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음
- 루미 정책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지?
 - ↳ 아직도 진행과정인 만큼 50%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청소년들이 센터에 많이 참여하더라도 자부담 없이 시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지?
 - ↳ 일반적 교양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나 요리 등의 재료구입은 유료이며, 1학기에 1회 정도 유료 프로그램이 있음.
- 청소년센터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다른 프로그램은 없는가?
 - ↳ 음악, 미술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며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음
-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통비도 제공하고 있는가?
 - ↳ 교통비를 제공하고 있음.

- ↳ 청소년센터에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역학교에서 청소년센터 이용시 교통비에 쓸 수 있는 티켓을 주고있음.
-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 ↳ 학교 부적응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학교차원 책임이며, 센터는 친구를 소개하는 등 사회성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청소년위원회는 타 지역에도 있는지?
 - ↳ 타 지역에도 있지만, 예산반영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센터는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 ↳ 평일은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은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음.
- 지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은 언제 만들었는지?
 - ↳ 1950년대 시민들의 대피소로 만들어진 것을 청소년들의 각종 놀이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음.
- 롤러스케이트장 이용료는 얼마이고,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 ↳ 20세 미만은 1유로, 20세 이상은 3.5유로
 - ↳ 하루 150명 정도 이용함

□ 시사점

- 핀란드 헬싱키 청소년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센터 운영에 학생 참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센터의 목적은 활동적인 시민을 육성하여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시민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청소년이 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는 것에 있음
- 특히, 청소년 위원회(루띠)를 구성하여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센터의 프로그램과 예산, 시설 등을 선택하고 있는 사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작은 시민으로 존중되기 보다는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우리도에서도 청소년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과 청소년센터 운영시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소년센터와 도서관, 그리고 노인센터와 헬스장 등이 한곳에 모여 있어 청소년을 포함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점은 우리도에서 착안할 사항임
- 아울러, 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함
 - 학교선생님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청소년의 문제는 센터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학교 교사와 협력하여 해결
 -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이의 상담만을 청소년센터에 의뢰하기 보다는 먼저 학교에서 학생들을 센터에 인솔
 -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센터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상담과 장래직업의 선택, 성교육 등 전문분야는 청소년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교와 연계
- 핀란드 헬싱키청소년센터가 타 센터와 차별화된 것으로는 2차 세계대전시 방공호(대피소)로 사용하던 공간을 실내스케이트장과 헬스클럽 등 청소년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음
- 우리도에서도 대규모 재난안전 대피시설 중 사용여부 및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곳에 한해 청소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이들은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키우는 것이다”라는 핀란드 청소년센터 관계자의 말처럼 청소년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 확인함

□ 방문사진



현황설명 청취 및 토론(1)



현황설명 청취 및 토론(2)



청소년과 탁구체험



지하 롤러스케이트장(1)



지하 롤러스케이트장(2)



목공예 실습 아이들



기념품 전달



센터 앞에서 단체사진

2 주핀란드 한국대사관 방문 간담회

□ 방문목적

- 국외연수 시작전 방문국에 대한 현지상황 청취 등 전반적인 이해로 내실있는 국외연수 가능
- 핀란드 복지, 환경 등 주요 분야별 정책, 제도 현황 파악
- 선진 유럽의 복지정책 및 개혁사례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구현을 위한 도정방향 제시 가능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3. 26(목) 09:50 ~ 11:10
- 장 소 : 주핀란드 한국대사관
- 면 담 자 : 장동희 핀란드 대사, 김원식 서기관 등 3명
- 내 용 : 핀란드 복지·환경 등 정책 동향 파악 및 현지상황 청취 등 간담회, 기념품 전달

□ 주요내용

핀란드 대사관 현황

- 공 관 장 : 장동희 대사
- 근무현황 : 대사 외 7명
- 주 소 : Erottajankatu 7 A, 4th 00130 Helsinki
- 전 화 : (358-9)251 5000, 팩스 : (358-9)251 50055
- 주요업무 : 영사, 정무, 경제, 문화홍보
- 관할지역 : 핀란드, 에스토니아

【장동희 대사 핀란드 등 전반적인 현황 설명】

- 핀란드는 숲과 호수의 나라로 사우나가 유명함
- 핀란드인은 숲과 호수에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으며 사우나는 꼭 있음
- 핀란드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회도 청정함
- 핀란드 국민성은 대체적으로 청렴한 사람이 많으며 항상 정직하게 살자 하는 것이 기본의식임. 정직하지 않으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적으로 손해임
- 회사나 식당에 외투걸이가 있는데 소지품은 물론 외투도 분실되지 않으며, 고속도로에선 추월선이 비어 있어도 급하게 추월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항상 주행선으로 앞차를 계속 따라감
- 언론인(기자)들 조차 뇌물성 또는 향응성이라 판단되면 식사도 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비판의식이 있음
- 시내 중심가의 건물은 일광방해 방지 등으로 7층이하 고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색채를 사용함
- 핀란드는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세금이 많게는 소득의 50% 이상을 내는 사람도 있으며 소득에 따라 누진적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24%로 우리나라(10%)에 비해 훨씬 높음
- 핀란드인은 세금으로 낸 것은 고스란히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으로 세금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하여 조세저항 등 거부반응이 없음
-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으며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공급시설이 우리나라와 달리 모두 지중화 시스템으로 도시가 깨끗함

현지 사례

- 한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핀란드 모바일 게임 “수퍼셀” 업체대표는 2013년도에 개인적으로 1.7억유로 벌어서 8천만유로를 세금으로 냈다(사회적으로 큰 기여한 것)고 자랑하기도 했음

【핀란드 복지제도 종합보고서- 핀란드 대사관 작성 자료】

보고서 전체 요약

- 핀란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시되고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여타 북유럽 국가와 달리 2차대전 이후 복지확대에 착수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여러 복지제도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보다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현재 핀란드는 높은 조세부담률(44.5%)을 바탕으로 산모에 대한 의료검진 및 출산지원, 취학 전 보육지원제도, 고등교육(대학원포함)까지의 전면 무상교육, 일반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구성되는 노후보장 연금제도, 저소득 빈민층을 위한 공적 구조, 의료보험 등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음
- 우리로서는 남북 분단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국방비 지출 필요, 높은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유럽 복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음. 또한 핀란드내에서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도한 사회복지에 대한 수정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럼에도, 한정된 복지예산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입하기 위해 △교육 및 여성 등 생산적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확대는 반드시 재정 건정성과 연계해 추진하되 △저출산·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 강화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등은 우리의 향후 복지정책 시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 시사점 요약(1)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복지에 우선 순위】

- 핀란드는 1990년대 경제 위기시에도 연금,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은 축소하면서도, 교육과 공공보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복지는 유지 또는 확대하였음
 -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필수적인 국방비 지출 등 현실을 감안하여 복지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를 시혜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우선투입하는 선택필요

【복지는 반드시 재정 건정성과 연계 추진】

- 핀란드가 보편적이면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데는 높은 조세부담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며,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을 담당하는 지자체도 무조건적인 복지확대가 아닌 '재정건정성 유지' 원칙하에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
 -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당연시되는 신뢰사회 조성 필요
 - 지자체의 복지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 재정건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 마련 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제도 시행】

- 핀란드는 다양한 출산 및 보육지원, 무상교육 등의 복지제도를 통해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1.9명)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지속 유도하고 있음
 -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에서 공공 보육서비스 강화, 산모 무료검진, 아동 수당 신설 등 출산율 제고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 시사점 요약(2)

→ 노인 복지 안전망 확대를 위한 강제퇴직 연령 탄력 적용, 고령 취업자에 대한 소득연금 가산율 확대, 불가피한 조기 퇴직자에 대해 수급률을 낮춘 연금개시 시기 조정 등을 실정에 맞게 일부 원용

【양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

- 핀란드가 높은 여성 경제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데는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공교육과 사회 각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 평등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영아기 직접 보육을 위한 출산휴가 및 지원제도, 이후 공공보육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육아부담을 줄여 여성 노동력의 시장진입을 유도
- 이와 함께 양성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시행과 직장 성 평등 옴부즈만 제도 등을 원용할 필요가 있음

【공교육을 통한 국가 부담의 점진적 확대】

- 핀란드는 100% 가까운 공교육 부담률에도 사교육없이 공교육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생산적 복지로서의 교육투자와 급식 등에서 국가 부담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복지제도를 통한 사회 불균형 해소】

- 핀란드는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 적용, 20km 이상 속도 위반자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징벌적 교통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제도가 사회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유럽 복지제도 개혁사례 및 복지재정 제도 비교】

유럽 복지제도 개혁사례

【스웨덴】

-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좀 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을 산출하는 데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기대수명을 반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덴마크】

- 1990년대 이래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복지제도 개혁의 초점을 맞춤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
-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67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

【네덜란드】

-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음

【독일】

-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 (과건근로제, 미니잡)
-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

유럽 복지재정 제도 비교

| 구분 | 스웨덴 | 노르웨이 | 핀란드 |
|---------------------------------|--|--|--|
| 서비스제공/ 재정형태 | 복지서비스 분권화 복지재정 탈중앙화 | 복지서비스 분권화 복지재정 중앙화 | 복지서비스 분권화 복지재정 탈중앙화 |
| GDP대비 사회지출(2012) | 28.2% | 22.1% | 29% |
| GDP대비 조세부담율(2010) | 34.1% | 33.3% | 29.8% |
| GDP대비 사회보장세(2010) | 11.4% | 9.6% | 12.7% |
| 중앙 - 지방 복지 역할 분담 | 중앙 정부 | 사회보험급여관리 및 지급, 전문의료서 비스(병원), 고등교 육, 전문사회서비스 | 사회보험급여관리및 지급, 고등교육 |
| | 광역 지자체 | 전문의료서비스 (병원), 보건서비스 | 중등교육 |
| | 기초 지자체 | 보육 등 모든 사회 서비스, 사회부조, 초중등교육 | 보육 및 유치원, 사 회부조, 보건의료서 비스, 초등교육,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
| 지방세 및 최고개인소득세 | 지방세율 31.6%(평균) 최고개인소득세율 61% | 지방(소득)세율 15.45% 최고개인소득세율 47.8% | 지방(소득)세율 19.4%(평균) 최고개인소득세율 51.75% |
| 중앙정부 교부금 및 재정균등화제도 | 광역지자체비중 22% 기초지자체비중 18% 수입균등화, 지출균등화, 추가교부금제도 | 광역지자체비중 47% 기초지자체비중 31% 재정지출 균등화제도 | 광역지자체비중 있음 기초지자체비중 18% 재정지출 균등화제도 |
| 법정복지와 자발적 복지 | 거의 모든 복지서비 스가 법정복지 자발적 복지는 미미 | 모든 복지가 법정복지임 강력한 중앙정부 관리감독 | 모든 복지서비스가 법정복지임 중앙정부기구의 광역 사무소 역할중요 |
| 복지개혁과 지방 정부 역할확대 | 복지개혁으로 지방정부 복지책임 강화 및 분권 화 민권화 경향 | 복지개혁으로 분권 화 민영화 예상 | 복지개혁으로 지방정부 복지책임 강화 및 분권 화 민권화 경향 |

□ 질의답변

- 핀란드에서 우리나라(사람)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 ↳ 한국사람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임.
- 핀란드의 교육정책은 어떠한지?
 - ↳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하게 대학원까지 무료교육으로 평등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대학진학률은 50%임
 - ↳ 모든 학교 교사는 대학원졸업 이상이어야 하며,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심화교육이 있음.
- 핀란드의 실업률 등 경제상황은?
 - ↳ 핀란드 3년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휴대폰 시장 최고로 핀란드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차지하던 노키아의 몰락과 주요 수출산업이던 목재산업 쇠퇴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음
 - ↳ 실업률은 13.4%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임
- 핀란드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어떠한가?
 - ↳ 국가가 부담하는 소득대체율은 10%가 넘고(실제 14%), 공무원 개인도 국가에서 소득대체율 만큼 부담(14%)하고 있음.
 - ↳ 한국은 국가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대체율이 7% 임.
- 핀란드의 출산율은 어떠한가, 출산율은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지?
 - ↳ 핀란드도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고민과 대책을 수립 시행해 왔음. 현재는 합계 출산율이 1.9명 정도임
 - ↳ 정부에서는 애를 키우는데 필요한 질 좋은 물건을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임신부가 출산시 제공하는 베이비키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육아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동학대가 없으며 정직과 신뢰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
- 핀란드에서 육아휴직은 어떠한가?

↳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육아수당으로 매달 50~60만원씩 지급하고, 부모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음

- 핀란드는 사우나가 유명하며 물이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물관리 및 우수율 등 현황은?

↳ 자연환경상 천연적으로 석회석이 없는 깨끗한 물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급하여 수돗물을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이 본 받을 점이 있다면?

↳ 국민성이 청렴하고 정직하여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음

□ 시사점

- 핀란드 대사관의 핀란드, 에스토니아 현황 등 전반적인 현지상황 청취로 방문국에 대한 이해로 내실있는 국외연수가 가능하였음
- 특히, 핀란드인은 정직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며 정직함과 신뢰가 생활화 되어 있고 높은 윤리의식과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어 지금의 선진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핀란드 모바일 게임 업체 대표가 1년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서 세금 납부가 자신에게 환원되고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례는 큰 교훈을 줌
-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금납부가 단순히 납을 위한 강제적 기부행위가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환원되고 사회에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
- 아울러, 정직과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선진 유럽 복지국가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필요한 물건을 국가가 구입하여 산모에게 주는 핀란드의 출산을 제고 국가 정책사업인 “베이비키트” 제도는 벤치마킹 사례로 우리도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도에 제도 도입시 가칭 “유아용품 선물상자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들에게 출산시 우선 필요한 기저귀, 옷, 장난감, 온도계 등 다양한 출산용품을 지원
 - 출산용품을 받기 싫어하는 경우 출산용품 가격의 절반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선진 유럽의 복지개혁 사례는 본격적인 복지확대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복지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구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큼.
 - 지자체의 적정조세 보장과 재정 준칙을 통해 복지재정과 주민부담의 조화를 이뤄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 교부금을 높이고 지자체 형평에 맞게 조정
 - 지방정부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복지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복지서비스 다양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책임 배분과 조정, 복지서비스 민주주의 등을 추구
 - 북유럽에서는 주요복지가 모두 법정 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재정보장, 감독)이 중요함
 -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제도 개선
-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막대한 재정비용이 요구되는 복지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원 분담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복지비용의 산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과 조세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엄격한 재정준칙과 투명성이 요구됨

□ 방문사진



대사관 전경



장동희 대사와 인사



핀란드 현황 등 설명 청취(1)



핀란드 현황 등 설명 청취(2)



핀란드 현황 등 설명 청취(2)



기념품 전달



기념사진(1)



기념사진(2)

3 노인 보호 및 요양시설 시찰 - HELANDER-KODIT

□ 방문목적

-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비교·사례 분석하고 선진 핀란드의 노인 복지산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양질의 노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노인요양 관련 정보 연구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효과적인 정책 개발 유도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3. 26(목) 13:00 ~ 14:40
- 장 소 : 헬싱키 노인 보호 및 요양시설(헬렌더의 집)
- 면 담 자 : 바르쁘 마틀라(VARPU MATTLAR) 센터장 등 2명
- 내 용 : 노인요양시설 현황 청취 및 시설 현장 시찰, 기념품 전달 등

□ 주요내용

HELANDER-KODIT 현황

- 주 소 : Mäkipellontie 22 D 00320 Helsinki
- 전화번호 : 359 (0)9 4770 3020
- 주 소 : Mäkipellontie 22 D 00320 Helsinki
- 홈페이지 : <http://www.ilmarihelanderinvanhustensaatio.fi>

【바르쁘 마틀라(VARPU MATTLAR) 센터장 시설 현황 설명】

- 헬렌더 협회는 크리스찬 헬렌더가 1967년에 설립하였음

- 헬렌더 집은 헬싱키의 대표적인 노인거주 형태의 NURSING HOME으로 사립 노인요양원임
- 헬렌더 요양원은 하가, 마눌라, 부싸리 3곳이 있으며, 현재 방문한 양로원은 1971년에 건립후 2000년에 큰 공사로 수리한 하가 양로원으로 아파트식으로 1인실, 2인실 등 총 46개의 방이 있으며 치매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음
- 전체 3군데 양로원에는 226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고 75세부터 100세가 넘는 분이 있으며 평균나이는 86세임. 가장 연장자는 103세, 식사는 공동(3식 2다과)
- 전체 3군데 양로원의 직원은 3교대로 100여명 근무함 (하가 양로원은 직원 35명 근무)
- 대부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일부는 몸이 건강하지만 안전한 삶을 위하여 입주한 노인도 있음
- 거주 노인들이 여행, 쇼핑 등 외출할 때 필요하면 1시간 당 37유로의 추가비용으로 도우미 서비스가 가능
- 각 방에는 화재경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주방에 인덕션으로 불을 사용해도 3분 이상이면 사무실에 경보장치가 울림
- 핀란드는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가정에서 독립하기 때문에 자식과 같이 사는 문화가 아니며 60세 이상이 되면 보통 양로원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음

□ 질의답변

- 헬렌더 양로원의 주요역할은 무엇인가?
↳ 노인 마사지, 치매노인 서비스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 노인요양시설에 입주한 노인들의 경비부담은?

- ↳ 1인 1달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1400~2000유로(월세, 전기세, 물세, 보안, 클리닉, 운동, 식사 등)
- ↳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가 지원이 다르며 비용부담은 예산의 30%지자체 부담, 70%는 거주자가 부담함
- ↳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200명은 지자체 도움없이 개인연금으로 입주하고 있으며, 26명은 일부 지지체 보조를 받고 있음
- ↳ 치매 노인의 경우 개인 수입이 적고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할 때 3,000유로까지 지자체에서 보조받음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 ↳ 우선 시설 환경 및 제공 서비스가 좋으며, 헬렌더 양로원에 입주하면 대개 자기연금액(평균 세금공제 후 1,600유로)의 80%를 양로원에 지불하고 20%는 개인이 사용함
- 양로원에 한번 입주하면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가?
 - ↳ 재정능력 및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거주 가능함
- 헬렌더 양로원에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가?
 - ↳ 의사는 2주에 한번 방문하여 진찰하며 평상시는 보건소에 진료함
- 노인들이 거주하는 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 규모는 21~55평방미터(6~17평) 임.
- 헬렌더 양로원 3곳의 1년 예산은 얼마인가?
 - ↳ 1년 예산은 630만 유로(한화 약 81억9,000만원) 임.
- 헬렌더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 ↳ 대개 가족이 와서 장례절차를 밟지만, 가족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음



Helander-kodit



Auaa ovi Helander-kotiin

Korkeatasoisista asumista
palvelukodeissa Helsingissä

**ILMARI HELANDERIN
VANHUSTEN SÄÄTIÖ**
www.ilmarihelanderinvanhustensaatio.fi

Palvelut Helander-kodeissa

Kodeissamme laadukas palvelu ja tyytyväinen asiakas kulkevat käsi kädessä. Ammattitaitoinen henkilökuntamme huolehtii asukkaiden arjen sujumisesta ympäri vuorokauden jokapäiväiseen elämään sekä hoivaan liittyvillä palveluilla. Kodeissa on monipuolista harraste- ja virkistystoimintaa.

Asukkaiden käytössä ovat kirjasto, kuntosali, saunatilat, vaatehuoneet sekä oleskelutilat. Kodeissa voi osallistua ohjattuun liikuntaan ja erilaisiin harrasteryhmiin sekä muihin tilaisuuksiin oman kiinnostuksensa mukaan.

Kotien keittiöt palvelevat asukkaiden lisäksi lähiseudun ihmisiä. Lounaan voi nauttia paikan päällä tai ostaa mukaan.

Perhejuhlat, kokoukset - palvelukotien juhlasalit muuntuvat moneen. Tiloja vuokrataan myös yksityisiin tilaisuuksiin. Keittöt valmistavat tilauksesta kakut, leivonnaiset ja muut herkut.

Kaikkissa kodeissa toimii yksityisiä hyvinvointipalveluja tuottavia yrityksiä.

Vanhustyötä vuodesta 1967

Ilmari Helanderin Vanhusten Säätiön toiminnassa pidetään tärkeänä vanhusten kunnioittamista ja yksilöllistä kohtaamista. Jokaisella on oikeus toteuttaa omannäköistään elämää. Teemme työtä kunkin asukkaan elämäntarpeen huomioiden ja yksilöllisiä voimavaroja tukien, vierellä kulkien.

"Kuljemme vanhuksen kanssa samaa puolta katuja mokaan ostekelaan, samaa tahiota tilanteeseen eläytyen hianta arvostavasti kuunnellen."

**ILMARI HELANDERIN
VANHUSTEN SÄÄTIÖ**
Puh. 09-4770 3050
Paikkatiedustelut
puh. 0400 341 306
www.ilmarihelanderinvanhustensaatio.fi



Haagan palvelukoti

Haagan palvelukoti on valmistunut vuonna 1971 ja peruskorjattu 2000. Palvelukoti sijaitsee rauhallisella pienkerrostaloalueella. Hyvät ulkoilumaastot (mm. Alppiruusupuisto) ja palvelut ovat talon välittömässä läheisyydessä.

Palvelukodissa on 37 yksiötä, 9 kaksiota sekä kaksi ryhmäkotia. Osassa huoneita on oma parveke. Lisäksi talosta löytyy paikkoja lyhytaikaiseen asumiseen.

Ryhmäkodeista 15-paikkainen Hellä-koti on paljon apua tarvitseville ja 12-paikkainen Helmi-koti muistisairaille. Helmi-kotiin voidaan ottaa myös päiväasiakkaita.

Aurinko hellii ulkoilijaa.



Maunulan palvelukoti

Maunulan palvelukoti on valmistunut vuonna 1983 ja peruskorjattu 2013. Koti sijaitsee luonnon keskellä. Suuri suojainen piha ja lähellä sijaitseva vanhusten poiku tarjoavat hyvät ulkoilumahdollisuudet. Ostoskeskus, terveysasema ja kirjasto sijaitsevat talon välittömässä läheisyydessä.

Kodissa on 66 yksiötä, joista osa voidaan yhdistää kaksioiksi. Talosta löytyy paikkoja myös lyhytaikaiseen asumiseen.

Palvelukodin yhteydessä toimii 20-paikkainen Lehmuskoti muistisairaille.

Laskiasiehaa perinteitä kunniaitteen.



Vuosaaren palvelukoti

Vuosaaren palvelukoti aloitti toimintansa vuoden 1989 lopulla. Palvelukoti sijaitsee rauhallisella keski-Vuosaaren alueella hyvien liikenneyhteyksien varrella. Lähikauppa ja bussipysäkki ovat aivan kodin läheisyydessä. Kauppaokeskuksen ja terveysaseman palvelut sekä metro ovat kävelytäisyydellä.

Kodissa on 58 yksiötä sekä yksi kaksio omalla pihalla. Osa yksiöistä voidaan yhdistää kaksioiksi. Talossa on mahdollisuus asua myös lyhytaikaisesti.

Kesäretki rannalle.



Mäkipellontie 22, 00320 Helsinki
Puh. 09 4770 3020

Hellä-koti puh. 09 4770 3030
Helmi-koti puh. 09 4770 3040

Suursuontie 29, 00630 Helsinki
Puh. 050 3563 430

Lehmuskoti puh. 040 734 8925

Koukkusaarentie 18, 00980 Helsinki
Puh. 050 3569 643

□ 시사점

-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에서는 노인을 보살피는 일은 가족기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핀란드 노인요양시설 시찰을 통해 목격하고 재인식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핵가족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핀란드 등 선진 유럽과 비슷한 노인복지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우리도에서도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헬렌더 노인 요양원은 사립 노인보호 및 거주시설로 전체적으로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 노인 냄새 등이 전혀 나지 않고 상큼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전체 거주 노인 226명에 대해 직원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직원 1명이 노인 3명 정도를 보살피고 있어 좀더 세밀하며 질적으로 높은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치매노인 거주시설의 경우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공동으로 활동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얼굴이 나오는 사진촬영을 금지함. 내부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 우리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시설운영시 노인건강 유지와 시설 이미지 개선 등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환기 시설 개선지원 등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임
- 특이한 것은 헬렌더 노인 요양원에 몸은 건강하지만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입주한 노인이 다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노인 요양원이 단지 요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 및 보호의 역할도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음

□ 방문사진



시설 전경



시설장과 인사



관계자 설명



시설 현황 청취(1)



시설 현황 청취(2)



기념사진



기념품 전달



시설앞에서 단체사진

4 친환경도시 에코비키 견학

□ 방문목적

- 친환경적인 주거복합도시를 방문하여 미래형 생태 및 친환경 도시 조성과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로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강구 및 도정 운영방향 제시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3. 28(토) 11:00 ~ 11:50
- 장 소 : 친환경도시 에코비키 일원
- 안 내 자 : 레베카 류
- 내 용 : 에코비키 건립 과정 및 시설현황 청취, 현지 지역 주민과 인터뷰, 현지시설 견학 및 친환경정책 파악 등

□ 주요내용

친환경도시 에코비키 현황

- 위 치 :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약 7km 떨어진 도심 외곽지역 비키구에 위치
- 추진배경 : 헬싱키 환경 아젠다 21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 복합 도시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핀란드에서 최초로 건설된 시범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임

【레베카 류 에코비키 건립과정 및 시설 현황 설명】

- 비키는 발트해 무역(한자 동맹)을 막기위한 주민의 강제이주로 조성된 도시였으나, 1950년대 농과대학이 신설되면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함, 1999년부터 2004년에 걸쳐 건설됨

- 에코비키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도시건설에 적용한 모범 사례로 매년 150여개의 대표단이 시찰차 방문하고 있음
- 주택의 80%는 시와 정부가 소유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주택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 에코비키의 특징으로는 첫째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 자연녹지구역과 인공적으로 건설된 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됨
 - 보도 블록은 투과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 단지 외곽으로는 습지를 포함한 실개천을 만들어 단지에서 빠져 나온 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정화역할 설계
- 둘째 에너지 절약형 설계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사용 극대화
 - 겨울철 강풍으로 인한 건물의 열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람길목에 방풍림 조성
 -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지붕에 자연환기시스템 구축
 - 콘크리트 사용을 최소화하고 목재를 최대한 활용
 - 단지내 가로등 위에 바람개비 같은 것을 달아 풍력을 이용 전기생산
- 셋째 헬싱키대학 생명공학연구소를 등이 밀집되어 있음
 - 핀란드 최대의 생명과학연구 기관이 밀집해 있는 과학단지과 같은 비키구 내에 자리잡고 있어 이론과 응용이 선순환적으로 작용

【현지 지역주민 인터뷰】

- 인터뷰한 현지 지역주민은 에코비키 내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임
- 에코비키로 이사온 이유는 자연속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이용에 특권(자기생각)이 있으며 아이가 있는 가족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지역임과 동시에 본인도 만족하고 있음
- 여름에 가뭄이 들 때 빗물을 이용한 물로 정원을 꾸미기 때문에 수도료가 저렴하나, 집값은 저렴한 편은 아님

□ 질의답변

- 에코비키로 개발되기 이전에 환경보전주의자들의 반대가 있었는지? 반대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 ↳ 90년대 초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사회적 논란이 많았음. 특히 개발예정지 인접지역에 자연보전지구가 있어 환경보전주의자들의 반대가 심했음
 - ↳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하게 되었음
- 핀란드 지역은 위도가 높아 태양광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는지?
 - ↳ 태양열 발전보다는 태양열로 사용하는 형태로 이용되며, 집열판 생산기술도 수준이 높음
- 에코비키와 헬싱키시 중심부를 비교해 주민만족도 등은 어떠한지?
 - ↳ 헬싱키 중심부보다 가격은 다소 낮더라도,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는 매우 높음
- 에코비키 건축물의 기본원칙이 있다면?
 - ↳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화석연료 사용, 농산품의 자체 커뮤니티 생산·소비 원칙 3가지를 준수함
-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실천 내용이 무엇인지?
 - ↳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20%감소, 표준 건축폐기물보다 10% 감소, 연 난방비 60% 감소(전기료)가 있음
- 에코비키 내 건축물은 기본원칙과 더불어 주거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이 따로 있는가?
 - ↳ 물소비량의 분리 계량, 보온효과를 위한 유리 발코니 사용, 수자원 절약 욕실·주방 구조, 정원용 빗물 사용 등 공통 건축기준이 있음
- 에코비키 사업 추진 효과를 요약한다면?
 - ↳ 독특한 주거문화구축, 지역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 온실효과

및 태양에너지를 통한 생태학적 이미지 창출, 공동주택개념을 통한 에너지 절약, 개인 텃밭 개간을 통한 녹색주거환경 구축, 어린이 친화적 환경 개척 등이 있음

↳ 더불어, 에코비키의 주거단지 개념은 향후 핀란드가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져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에코비키 사업의 개선사항이 있다면?

↳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방식으로 인한 더딘 변화, 지속적인 개발 요구가 있음

- 에코비키 공간 중 '그린핑거'는 무엇인가?

↳ 그린핑거(green finger)는 주거 구역인 건물들이 모여 있고 손가락 모양처럼 주거 구역 사이로 녹지가 관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에코비키 주거단지 사이의 녹지공간을 말함

↳ 이 녹지공간은 주민들의 쉼터,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텃밭을 가꾸기도 함.

□ 시사점

- 핀란드 최초 친환경도시계획지구인 에코비키는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임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핀란드의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단적으로 에코비키 지구를 개발해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조성했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 이를 잘 설명함

- 실제 에코비키 마을 안에서는 자동차 주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건물배치도 가급적 일조에 유리한 남향 또는 남서향으로 하고 투명 유리재질을 사용한 외장을 통해 복사열을 최대한 받아

들어 따뜻한 공기층을 확보하는 방식, 나무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등 각종 실험적인 건축요소들이 다수 적용되고 있음.

- 에코비키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조성한 마을로 빗물저장 시설과 땅속에 스며든 빗물을 이용하여 설치된 수동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정원과 텃밭을 가꾸는 데 사용하고 있음.
- 핀란드는 물이 풍부한 나라지만 빗물을 저장해 쓸 정도로 물을 아끼고 있으며 아끼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것을 알수 있음
- 에코비키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냄새가 나지 않고 청결한 상태로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등이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되어 있었음
- 에코비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런 생태마을이 그냥 전시용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거주 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임
-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환경파괴에 대한 여론이 거세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인구유입에 따른 택지개발이 필요했던 헬싱키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걸고 시민들을 설득하였음
- 누구나 환경을 사랑하고 살리자는 구호를 외치기 쉽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자신의 생활태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비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성공했던 것으로 사료됨
- 에코비키 프로젝트 성공은 지속가능한 개발은 속도가 다소 늦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성공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지구온난화 등으로 선진국들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과제로 삼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및 녹지공간 확보로 지속가능 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방문사진



도시 입구



도시 시찰 및 설명 청취



현지 주민과 인사



현지주민 인터뷰



분리수거 시설



난방공급을 위한 태양광 패널



도시내 아파트 전경



도시 입구에서 기념사진

5 하마비 녹색주거단지 방문

□ 방문목적

-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친수·자원순환의 도시개발 사례 파악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재생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도정운영 정책방향 제시
- 벤치마킹 결과를 전라북도의회 친환경에너지정책 연구모임 활동방향 및 활동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연구 활성화 도모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3. 30(월) 15:20 ~ 16:20
- 장 소 : 하마비 녹색주거단지 내 환경인포메이션센터 등
- 면 담 자 : 비욘 세대크리스트(BOORN CEDERQVIST)
- 내 용 : 하마비 허스타드 모델 이해 및 녹색 주거단지 건립과정 및 운영현황 청취, 현지시설 견학,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 파악

□ 주요내용

하마비 녹색주거단지 현황

- 위 치 :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동남쪽 도심지역
- 개발기간 : 1995년 ~ 2017년 (현재 70% 추진 중)
- 소요예산 : 4조 8천억원 (민간 80%, 시 20%)
- 개발방식 : 공영개발방식(스톡홀름 시정부에서 개발 계획 수립 스톡홀름 시정부와 스웨덴 교통부를 중심으로 개발 비용 조달)

【비온 세대크리스트 하마비 허스타드 모델 및 녹색주거단지 운영현황 설명】

- 과거 스톡홀름시 외곽의 공업지역으로 제조업 쇠퇴로 산업기능을 상실하면서 도시기능 쇠퇴하게 됨
- 1990년 초 급증하는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개발 결정, 1996년 '2004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선수촌과 경기장 건설계획으로 변경하였으나, 유치실패 이후 주변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합도시개발을 추진
- 추진방식
 - 시유지로서 개발방향을 자유롭게 적용가능
 - 시에서 개발지역에 대한 기반 조성 후 10개 구역으로 분할
 - 10개 구역에 대한 각각 개별 건축·조경전문가가 디자인화
 - 민간투자자가 건축물을 조성 후 개인에게 분양
 - 시정부는 민간투자자로부터 부지 임대료 수입창출
- 하마비 개발과정 모습



〈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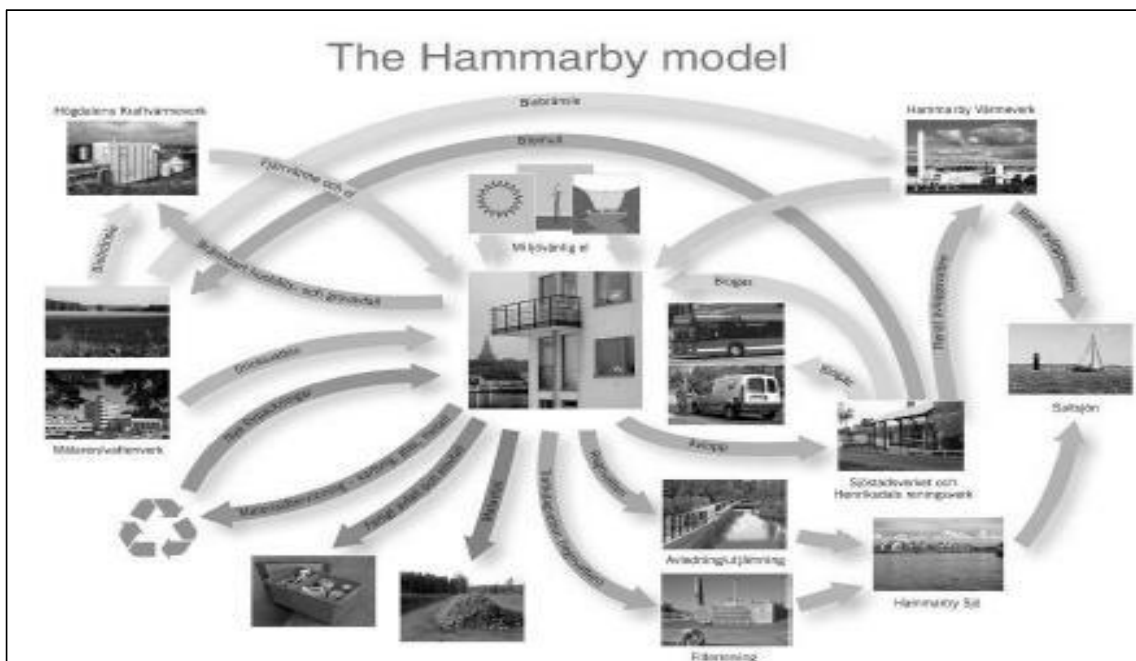
〈개발중〉

〈개발후〉

- 하마비의 모든 택지와 건축물은 시정부 소유이며, 임대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은 주거권한만 갖고 있음
- 자원절감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친환경주거 도시임
- 전세계가 당면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를 대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 매년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가 15천명 유입되고 있어 매년

8,000가구가 필요한 상황임

- 지속가능한 자원재생과 더불어 수변공간을 이용하여 거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녹색교통의 일환으로 노면전차 도시전체 연결, 자전거 출퇴근이 20% 이상임
- 하마비 허스타드 모델은 자원순환시스템(재생에너지 활용시스템)이라 할수 있으며 가정의 배출 폐수, 폐열, 쓰레기 등을 자체시설로 정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음(swedish trad council에서 모델을 개발)
 - 3중 단열창, 자원절약형 실내 환기 시스템,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실용화
 - 쓰레기 소각,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열로 지역난방, 전력생산
 - 음식물쓰레기,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바이오가스로 변환, 자동차 연료로 사용



- 하마비 허스타드 모델 -

- 하마비에서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에서 전기를 생산하며 하수처리 플랜트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자동차와 난방연료로 사용되고 있음. 폐기물 소각시

설의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을 활용함. 태양열을 이용한 개별건축물에 연간 난방의 50% 공급 계획임

- 녹지에 식용작물을 재배하고, 나무담장을 사용함. 습지대와 보행자 도로, 수변공간이 연계 조성됨으로써 주거지와 자연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됨
- 지하배관에 의한 쓰레기 회수시스템 적용(아파트 단지의 쓰레기통과 시의 중앙 쓰레기 수집소를 연결하는 배관을 통해 시속 70km의 진공 추진방식으로 중앙수집소에 자동 취함)
- 음식물쓰레기 회수를 통한 비료화, 일반 쓰레기의 80%를 재사용
- 폐수 및 폐기물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바이오 가스) 및 식물의 비료추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 냉난방으로 전환

□ 질의답변

- 바이오가스 사용으로 인한 민원은 없는지?
↳ 지하에 저장하여 필터 이용 등으로 냄새가 전혀 안 남
- 전기생산을 위한 에너지원 현황은?
↳ 수력발전 50%, 원자력발전 50%
- 지역난방을 위한 파이프 설치 현황은?
↳ 1980년부터 지역난방 파이프를 설치하여 전체 80%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이용 후 공기가 정화되는 효과가 생겼음
- 지역난방에 이용되는 에너지원 현황은?
↳ 석탄 15%, 쓰레기 45%(유기성 15%, 일반 30%), 하수처리과정 발생열 30%임
- 하마비 녹색주거단지 주민참여 실태는?
↳ 환경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교육과 도시개발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

- ↳ 북유럽 사회주의 영향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수동적, 협조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
- 하마비 녹색주거단지에 벤치마킹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 ↳ 1990년대에 비해 30~40% 환경오염 영향 감소, 다른 스톡홀름 지역구에 비해 14% 낮은 승용차 이용, 기타 스톡홀름 지역구 일인당 수자원사용량에 비해 50리터 적은 수자원사용, 타운 건설 및 운영 시 필요한 자체 에너지 50% 감소, 스웨덴 정부의 거주지역 난방
- 스톡홀름의 환경프로젝트 전략은 무엇인가?
 - ↳ 공중위생시설 재개발, 낙후된 공업지구의 거주 지역화
 - ↳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카풀라인·자전거도로 구축을 통해 승용차 사용량 감소 추구
 - ↳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사용, 에너지는 재사용가능에너지, 생물가스상품, 쓰레기재활용 에너지 사용
 - ↳ 수자원보호 및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는 재활용 에너지 생산·이용이 있음

□ 시사점

- 북유럽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친화적 개발과도 일맥상통하며, 특히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1972년 세계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어 국제적인 환경보호 원칙인 '스톡홀름 선언'이 공포된 곳으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도시개발에 반영되고 있는 도시임
- 스웨덴 스톡홀름 하마비 허스타드 녹색주거단지는 스톡홀름 시내의 신도심으로 개발한 생태주거단지로 건축과 현대기술을 접목하여, 수변과 녹지로의 접근성을 높인 단지로 핀란드 친환경도시 에코비키와는 다른 개념의 환경단지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부분을 에너지, 쓰레기, 물에서 스웨덴의 하마비시는 찾고 있음, 우리가 발생시키는 쓰레기는 사실 엄청난 자원인 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조만간 고갈된 조짐을 보이고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활용과 최소한의 에너지와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정책과 방향이 필요함
- 도시계획은 조금만 실수하여도 엄청난 비용의 지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년이상을 내다 볼 수 있는 장기적 안목으로 에너지저감을 위한 대중교통의 시설,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의 교통인프라, 쓰레기 제로화 시스템,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됨
-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우리도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Envac이라는 자동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흡입시스템으로 지하로 내려간 쓰레기를 밖에 있는 차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도 실정에 맞게 도입·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분리수거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훌륭하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시민의식은 스웨덴 등 선진 유럽에 비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에너지절감과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가 더욱더 필요할 것임.
- 후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나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모두 에너지의 낭비는 없는지 재점검 해야 할 것임
- 더불어, 금번에 벤치마킹한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의회 친환경 에너지정책연구모임 활동에 반영, 정책연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방문사진



하마비 단지내 환경교육센터 입구



시설 관계자 접견



단지 모형



시설 현황 청취



시설 현황 청취(2)



질의 답변



환경교육 자료



기념 사진

6 사회적기업 바스타 방문

□ 방문목적

- 재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단순히 국가에 의존하는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결합인 사회적 기업 운영시스템 파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특화방안 제시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3. 31(화) 09:10 ~ 10:30
- 장 소 : 사회적 기업 바스타
- 면 담 자 : 라스 스베딘(LARS SVENDIN)
- 내 용 :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청취 및 사회적경제의 복지 모델 현장 방문, 사회적 기업의 고용과 복지 연계방안 고찰, 기념품 전달 등

□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바스타 현황

- 주 소 : 155 92 Nykvarn, Sweden
- 연 락 처 : +46 8 552 414 00
- 홈페이지 : www.basta.se
- 스톡홀름에서 서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인구1만명 안팎의 작은 도시 뉘크바른(Nykvarn).스웨덴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바스타(Basta)는 뉘크바른 외곽 약 54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대지위에 자리잡고 있음 너른 대지 위에 자리하고 있음

【라스 스베덴 사회적기업 바스타 대표 운영 및 현황 설명】

- 바스타 사회적 기업은 4명의 위원회에서 운영하며, 면담자는 경제담당 라스 스베덴임
- 바스타는 약물(알코올 포함) 중독자들을 위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으로 100명의 근로자 중 95명이 약물·알코올 중독자이고, 이 중 70명은 바스타에서 살고 있음
-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발하는 울창한 전나무 숲속에 안긴 바스타는 사무공간이기보다는 일종의 ‘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음
- 바스타는 사무실과 공장 외에도 넓은 부지에 숙박시설, 식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바스타’란 용어는 스웨덴의 옛날 표현임과 동시에 이탈리아, 체코 등 범 유러피언적인 언어로 “전부다 때려치우겠다. (나쁜 습관이나 행실을) 그만두겠어”라는 뜻임
- 목공업(목재가구 및 소품제작, 판매), 말 분양, 청소, 건축(신축, 리모델링 등), 개 돌봄 서비스(dog hostel 운영), 바스타 시설 관리, 장소대여 등 연간 6백만 유로(약 88억원)의 매출을 달성
- 바스타 운영 및 재활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work : 20년 전에는 상담을 통해 재활하였지만 현재는 그룹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능력 개발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재활함
 - Quality : 소통 중에 좋은 단어, 좋은 생각을 하도록 하여 본인의 가치를 일깨움
 - Health : 건강관리를 해줌, 커피 외 약물은 엄단하고 있고 파급 효과가 크므로 발견 시 10분 이내 퇴출
 - Solidarily : 선배들이 멘토가 되는 등 연대의식 고양
 - Good example : 같은 처지에서 매니저가 된 중독자 들을 보고 동기 부여

- independence : 정부, 지자체 지원금은 받지 않고, 일하고 생
산품 판매를 통해 의존성 탈피
- 스웨덴 110개 지자체 복지담당부서와 1년간 1인당 110유로/day
- 범죄관련 부서와 1년간 1인당 120유로/day에 계약하고 재활시킴,
1년후는 개인 선택
- 중독자들을 통해 1년에 1,200,000 크로나/인 사회적 손실 발생 예상
- 바스타 사회적기업 모델은 유럽에서 유일한 모델임

□ 질의답변

- 바스타에 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가?
 - ↳ 바스타는 스웨덴 전체적으로 3개 지역에 200명 근로자가 있음.
현재 방문한 곳은 중부지역으로 100명이 있고, 남부 50명,
북부 50명이 있음
 - ↳ 평균연령은 38세, 대부분 20년 중독, 4.5년 수감생활함, 65%가
남자이며 여자들의 경우 치료 후 매니저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기업 바스타의 목적은?
 - ↳ 사회적기업 바스타의 목적은 좀더 질이 나은 개인의 생활을
위함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스웨덴 바스타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 ↳ 바스타에는 그런 제도는 없으며 근로자는 모두 알콜중독자 및
마약중독자임
- 바스타에는 약물 중독자라면 누구나 올수 있는지?
 - ↳ 바스타에는 스웨덴 시민권자만 올 수 있고, 4가지 규칙이 있으
며, 이 중 하나라도 어길 경우 바로 바스타를 떠나야 함
 - ↳ 모든 약물(술 포함) 금지, 폭력 금지, 차별 금지, 첫 6개월간

연애금지, 첫 6개월간 연애를 금지하는 것은 쉽게 상대방에게 기대게 되어 자립에 방해가 되기 때문임

- 넓은 부지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바스타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했는지?
 - ↳ 바스타는 5개의 지방정부에서 1백만 크로나씩 총 5백만 크로나 (약 8억4천만원)를 출연하여 설립되었음, 현재 이돈은 모두 갚았고, 대부분의 운영비는 자체 충당하고 있음
- 부부가 같이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지?
 - ↳ 커플이 동시에 바스타에 들어올 수는 있으나 연애가 금지되며, 6개월간은 따로 떨어져 지내야 함
-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는 비결이 있다면?
 - ↳ 우선 중독자 본인의 자활의지가 중요하며 그 의지를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시장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함. 수요가 있고 바스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목공업과 dog hostel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Dog Hostel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가?
 - ↳ 스웨덴 사람들은 큰 개를 좋아하고 많이 키우고 있음. 하지만 하루 종일 개를 돌볼 수 없어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개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
- 바스타를 떠난 사람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이며, 사후관리는?
 - ↳ 별도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후관리 없음. 스웨덴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중요시하므로 추적하여 사후관리 하는 것은 불가능함.

- 바스타의 설립 배경은?

- ↳ 바스타의 설립자인 Alec Carlberg가 당시 세계최대의 재사회화기관인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San Patrignano Italy을 방문하여 사회적기업 필요 인식에 따라 설립하였음

□ 시사점

-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성과도 창출해야 하고, 재사회화·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목적도 실현해야 함. 그러나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스웨덴의 사회적기업 바스타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와 계약원리에 따르는 기업으로서의 특징을 보임과 동시에 바스타의 직원으로 일하는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바스타 자체의 자립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음
- 바스타는 약물중독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의사)이 없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통해 약물 중독자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은 바스타에서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분석 경쟁력 있는 서비스(제품)를 개발·공급하여 재정적인 면에서도 자립하고 있음
- 유럽에서 유일한 전문적 노동통합 사회적경제의 복지모델인 스웨덴의 사회적 기업 바스타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재정적인 자립과 더불어 자활, 사회통합, 지역사회복지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문사진



브리핑 청취



질의답변 및 토론(1)



질의답변 및 토론(2)



시설 사진(1)



시설 사진(2)



시설 사진(3)



기념품 전달



단체 기념사진

7 문화유산도시 등 문화 탐방

□ 방문목적

-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관광지 개발사례 비교·분석으로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추진 발전전략 마련 제시

□ 방문지역 및 주요대상

- 에스토니아(탈린) : 발틱해의 여왕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도시
- 핀란드(헬싱키) : 시청사, 시벨리우스 공원 등
- 스웨덴(스톡홀름) : 시청사, 읍살라 대학 등

□ 시사점

-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도심 템펠리아우키오 광장 근처에 있는 바위를 파서 만든 템펠리아우키오 교회는 극한의 기후와 충격에도 교회를 보전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짐. 핀란드 자연환경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암석을 파내어 내부를 만들면서 자연상태 그대로 남겨 두었던 암석 일부가 교회 건축 내부를 장식하고 있음.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함

- 핀란드의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시벨리우스 공원은 사진이나 책자로 보면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이나, 실제 모습은 생각했던 거에 비해 많이 작고 볼 것이 없었음.

→ 자연환경 및 조각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거리를 추가(스토리텔링)하면 이미지 제고 등 관광홍보 효과가 큼

- 스웨덴의 스톡홀름 시청사는 매년 노벨상 축하연이 개최되는 장소로 내부시설은 시민에게 공개되어 있고,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결혼식장을 대여해 주고 있음. 스톡홀름 시청사 건축물은 행정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고 입법부만 있음. 스톡홀름 시에는 업무를 보는 청사가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음.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결혼식장을 대여해 주고 있음
 - 우리도 청사시설을 도민에게 공개(공연장을 결혼식장으로 대여, 1층 로비 도민 편의시설 제공 등)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구시가지는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음. 알렉산드로 네브스키 대성당 등 곳곳이 마치 동화속 같은 분위기로 러시아와 덴마크의 영향이 혼합된 가운데 에스토니아 고유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음
- 에스토니아 문화유산도시 등 핀란드, 스웨덴 문화탐방 결과 우리도 생태관광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생태환경자원별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육성 및 홍보계획이 필요하며, 생태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대외적 인지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방문사진



핀란드 원로원 광장



에스토니아 탈린 문화유산도시



에스토니아 탈린 구시가지 전경



핀란드 한인회장과 함께



핀란드 템펠리아우키오 교회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 내부



스웨덴 스톡홀름문화센터



스웨덴 한인회장 접견

제4장 연수후기

1 전라북도의회 강영수 환경복지위원장

들어가며...

- “정직”, “청렴”, “신뢰”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
“지속가능”

- 위에 6가지 단어는 이번 연수 기간동안 나의 뇌리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스쳐 지나간 단어들이다. 연수 소감을 한



강영수 위원장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직과 청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나아가 우리나라는 지속가능 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 금번 연수는 ‘14년부터 기획된 것으로 철저한 자료 수집 및 위원회 심층토론 등을 통해 선진 북유럽의 환경 및 복지 정책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도정에 접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을 방문 국가로 결정하였다.
- 이전까지는 환경복지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의회사무처 직원만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집행자 및 전문가인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 공동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연수... 느끼고 배운점

- 우리 연수단은 지난 3. 26일부터 4. 1일까지 6박 8일 기간동안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스웨덴의 환경·복지 그리고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느끼며 배우고 왔다.
- 핀란드에 도착하자마자 헬싱키 청소년센터를 방문했다. 현황에 대한 브리핑 청취 및 질의답변 후 센터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에는 큰 규모의 스케이트보드장이 있었고 칸칸이 방에는 청소년들이 미술, 목공예 등을 배우고 있었다. 밖이 아무리 추워도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며 놀수 있는 장소가 부러웠다. 대형 롤러 스케이트장에서 신나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청소년과 7살 여자 아이가 취미활동으로 목재를 자르며 목공예실습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육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놀 곳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옥내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다음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주핀란드 한국대사관의 장동희 대사님은 방문한 우리연수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다. 간담회는 핀란드식으로 진행됐다. 핀란드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간단한 다과회를 갖은 후 서서 자유스럽게 대화한다. 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인은 정직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며 정직함과 신뢰가 생활화 되어 있고 높은 윤리의식과 건전한 비판의식이 있어 지금의 선진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 이날 오후에는 핀란드의 노인보호 및 요양시설인 헬렌더의 집을 방문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사립요양원이었다. 시설 이용

료는 다소 비싸지만 청결한 시설과 특히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특이한 점이었다.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에서는 노인을 보살피는 일은 가족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임을 재확인했다.

- 에스토니아 탈린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도시(구시가지)가 있는 곳이다. 구시가지에 들어간 순간 동화속에서나 나올 법한 예쁜 건물들의 파스텔톤 색에 매료됐다.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의 톱페아 언덕에서 내려다 본 구시가지의 14~15세기 중세의 풍경에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에스토니아인들의 강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 핀란드 마지막날 방문한 친환경도시 에코비키는 헬싱키 환경아젠다 21프로그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주거복합도시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핀란드에서 최초로 건설된 시범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다. 에코비키에서 만난 현지 주민은 안전과 편리 무엇보다 친환경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 에코비키 프로젝트의 성공은 지속가능한 개발은 속도가 다소 늦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성공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핀란드에서 스웨덴으로 출발하기 전 특별한 손님을 만났다. 태권도인 황대진 사범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단을 찾아왔다. 현재 핀란드 한인회장과 핀란드 태권도연맹 명예회장으로서 핀란드 내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황대진 사범과 핀란드와 한국간 각종 교류협력 추진 및 한국 홍보 방안 논의 등 간담회를 갖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실야라인 배에 몸을 실었다.

- 스웨덴의 하마비 녹색주거단지는 자원절감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친환경주거도시다. 환경홍보센터 홍보담당이 우리 연수단에게 설명을 마치고 비가 오는데도 해맑은 미소로 자연스럽게 우의를 입고 자전거를 타며 여유롭게 퇴근하는 모습은 나에게 너무 인상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마비 녹색주거단지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 스웨덴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사회적기업 바스타를 방문했다. 바스타는 약물(알코올 포함) 중독자들을 위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정부와 자치단체에 판매한다. 바스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약물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포기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이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귀국하기 전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한인회장과 태권도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임지표 태권도인을 만나 앞으로 러시아에서 열릴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 집행위원회와 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유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무리..

- 우리 연수단에게 6박8일은 그냥 지나치기엔 긴 기간이지만 공부하고 배우기에는 너무 짧은 일정이었다.
- 선진 북유럽에 대한 연수결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라북도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정직과 청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재인식했다.

- 또한,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한 선진 북유럽국가의 교훈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개선을 복지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적기업 바스타의 사례와 같이 복지, 노동시장, 교육 정책 등 여러 정책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더불어 지구온난화 등으로 선진국들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도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및 녹지공간 확보 등 지속가능 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연수시 배우고 느낀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전북도에서는 적극 고민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 다만, 선진국의 우수사례라고 무조건 따라하며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우리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토대로 차별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공동 국외연수를 정례화하고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외 연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아무 탈없이 연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정호윤 의원님, 최훈열 의원님과 전북도청 사회복지과 이송희 과장님, 새만금수질개선과 허영덕 과장님 등 소관 집행부서 참석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전북도청 사회복지과 이송희 과장, 환경보전과 소현례 팀장

-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스웨덴은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어서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번에 갈 수 있었다. 들었던 대로 깨끗하고 몇 백 년 된 건물들이 문화유산으로 고스란히 지정되거나 잘 관리되고 있었고, 환기 시설이 잘되어 있어 노인복지시설에서조차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깨끗하고 상큼한 분위기여서 무척 인상적이었다.
- 그러나 흑야현상으로 인해 알콜 중독과 마약등 약물중독이 많고 우울증이 많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웠고 햇볕을 쬐기 위해 다른 나라로 휴가를 가고, 햇볕이 나는 날은 최대한 햇볕을 쬐어두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 밖 프로그램(정부나 지자체 민간 등이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같은 것)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학교에서 심리전공 선생, 사회복지, 미술선생, 등교 도우미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돌봄으로써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받을만하다고 본다.
- 청소년이지만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누구도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정보와 정책 및 의견제시 결과를 알려줘 모두 함께 한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는 부분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일치감치 입시경쟁에 내몰려 본인의 의지나 권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늘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 핀란드 교육정책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누구나 평등하게 대학

원까지 무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처럼 모든 학생이 대학을 가기위한 목적이 아닌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만 진학을 하고(50%), 학교교사는 대학원졸 이상으로 하여 학교 질을 높이고 개인과외를 하거나 학원가는 일이 없이 학교 내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시켜 진도가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 있게 개별 지도해 주는 심화교육제도가 인상적이었다.

- 핀란드 정치인이나 관료들 전 국민들의 정직하고 인내심 강한 국민성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정직과 윤리의식, 비판의식을 중요시 여겨 다른 사람한테 받은 선물이나 혜택을 뇌물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국민성이 대단하다고 본다. 어딜 가든 물건이 없어진 적이 없고 남의물건을 탐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역시 선진국인 것 같다.
- 핀란드 경제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던 노키아 그룹의 몰락으로 국내에서는 핀란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것처럼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가서보니 청년 실업율이 8%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창업이 많아지고 기존 노키아의 자리에 게임 산업이 들어서 등 대체로 안정화 내지 활성화 되어 가고 있었다.
- 스웨덴은 출산할 때 부부가 1년 4개월을 함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 남편이 2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이익이 되게 정책적으로 되어 있었다. 이 때 월급의 80%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간 동안 휴직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그 이후 유아원에 맡겨 양육하고 있다. 아동 학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늘 안전을 신경 써 주고 양육해 주기 때문에 부모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한다. 특히 유아원부터 대학원까지 무료 교육이고 교

육과정상 “우리나라에서 성행하는 부류의 사교육”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웠다. 이 점이 특히 부러웠다.

- 한국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고 출산율 저하는 노동 인구 부족과 사회빈곤으로 이어 진다 라는 말이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 취업율이 84%에 이르고 출산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양육제도, 사교육비가 없는 체계적인 무상교육정책과 퇴근시간이 빠르고 8시 이후는 상업 활동이 종료되는 등 “저녁이 있는 삶” 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양육제도”, “사교육이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 “저녁이 있는 삶” 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핀란드의 미래형 도시 “에코비키” 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친환경 주거 복합도시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채광, 물 소비량, 소음, 쓰레기의 양, 태양, 기후, 습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도시에 들어서자 도로에서 부터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녹지 공간조성, 건물 층수 제한, 차도와 인도사이의 수림대 조성, 인도와 자전거도로 설치와 건물 지붕의 태양광 시설, 아파트 배란다에 태양광 모듈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정마다 빗물 재이용을 위한 물받이 시설이 있고 주택마다 야채 등을 재배할 수 있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어 빗물은 채소 경작용으로 활용되고,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 되어 철저하게 분리 배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반단지에 비해 40%정도 적고, 쓰레기 배출량도 1/3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우리 도에서도 에코시티 조성 등 공동주택 건립 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는 방안과 기존 아파트에 소형태양광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생태자원의 중요성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건물 및 옥외광고물의 디자인분야에서도 돌출 간판이 없고 건물 벽은 환경 친화적인 색상으로 화려하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색감과 일정규모의 간판이 이색적이며, 빛 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국민성이 부러웠다

현대의 감성과 미래지향에 맞도록 새롭게 변화하는 옥외광고물 관리 방안 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광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측면 등에서 핀란드의 옥외광고 사례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중세도시 건물을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여 관리 보전하거나 도심 내 대규모 국립공원을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자원의 보전과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우리도의 자원을 발굴하여 세계 문화유산지구, 생물권보전지역 및 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생태공원 등의 지속적 지정·확충과 적극적 관리로 실제적 수익 창출을 위한 관광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 건널목에 사람이 서 있으면 멈춰서는 양보운전자들 !, 앞서가는 차에 대한 배려로 무리하게 과속과 추월하지 않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지 않아 경적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국했다. 물론 과속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근 모 CEO가 과속 20km 초과로 1억 5천만원 부과되어 언론에 화제가 된 적 있음) 그 액수는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액이라고 한다. “유럽인의 국민성은 아는 만큼 공감 한다” 고 했던가? 인간위주의 정책과 그에 맞는 삶에 감탄했다.

3 전북도청 새만금수질개선과 허영덕 과장

- 나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거리를 거닐면서 아름다움과 평화로움 그리고 여유로움을 느꼈다.
- 7층 이하의 낮은 건물과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의 건물 외벽 그리고 돌출간판,현수막,광고 전단지가 전혀 없고(법적으로 금지 됨) 건물과 도로 사이에 광장과 소공원 같은 녹지 공간이 많이 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도 녹지 공간이 많다고는 하나 다수의 공공기관으로 인한 전체 도시에 대한 녹지율이 높아진 것 뿐이어서 핀란드와 같이 불럭 마다의 광장,소공원 같은 녹지공간이 여러 곳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현수막과 전단지... 우리 주위를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많다. 핀란드는 인간이 왜 이 좋은 자연환경을 볼 권리를 그들이(현수막 등) 빼앗으면 되겠는가 라고 법으로 일체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완전 금지는 아니더라도 제한하고는 있지만 행정의 단속도 미흡 할뿐더러 시민의 준법의식도 희박하여 무질서한 현수막 게첨과 무자비한 전단지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상 현실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가지도 참 인상적이었다. 나는 도로 비점오염원 처리에 관심이 있던 중에 마침 비가 연일 내려 잘 볼 수 있었다.
- 도로 중앙분리벽이 없이 잔디로 피복된 배수구가 중앙 분리대 역할을 하고 빗물이 도로 가운데와 양 옆 잔디 배수로로 이동하면서 자연 토양으로 침투 정화되고 일부는 맨홀로 수집이 되어 필터 정화 후 하천이나 호수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도로 공사시 과도한 경계석 과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기술적 검토를 거쳐 잔디 배수로를 도입하면 좋겠다.

4

전북도청 새만금수질개선과 곽철훈 주무관

- 이번 핀란드, 스웨덴 국외연수에서 약물중독자 작업치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basta), 바이오가스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하수처리시 바이오가스 생산은 물론 하수처리수의 온도와 쓰레기 소각 등을 지역난방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지와 친환경이 단순히 소모적인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생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도정에 적용할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적용보다 바이오가스 사용 시내버스와 같이 공공차원의 고려와 도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투수성 포장과 비포장길, 빗물을 저장하고 활용하려는 노력 등을 보면서 성공적인 친환경정책을 위해서는 눈앞의 편리함보다 환경을 고려하고 누릴 수 있는 시민의식 형성이 시급해 보인다.

※ 참고자료

1 방문국 지역 세부현황

가. 헬싱키

‘발트해의 아가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로 아름다운 거리와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대형 선박들이 드나드는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특히 백야가 계속되는 6~8월의 낭만적인 여행이 매력적인 곳이다.

□ 교육

-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최고(最高)의 국립 종합 대학인 헬싱키 대학은 핀란드가 스웨덴령(領)이던 1640년 크리스티나 여왕이 구도(舊都) 투르쿠에 설립한 것으로, 1827년 도시가 큰 화재로 소실되자 새로운 수도 헬싱키로 옮겨 재건하였다. 신학, 의학, 법학, 철학, 문학, 교육학, 사회과학, 어학, 농·임학 등의 학부가 있으며, 교수 용어는 핀란드 어와 스웨덴어를 병용하고 있다.

□ 산업

- 헬싱키의 경제활동과 발전은 우수한 항만시설, 내륙 여러 지역과 잘 연결된 철도·도로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핀란드 총수입물량의 1/2 이상이 헬싱키 항구를 거쳐간다. 그러나 헬싱키를 거쳐가는 핀란드 수출 물량은 극히 소량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핀란드 해안을 따라 대규모 수출 항구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 헬싱키의 주요 산업은 식품·금속 가공·인쇄·섬유·의류 등이다. 베르트실레 조선소와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아라비아 도자기 류 공장은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 시벨리우스 공원(SIBELUMIN TADMUSO)

- 핀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Jean Sibelius)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다. 공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4톤의 강철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 모양의 시벨리우스 기념비와 그 옆의 시벨리우스 두상이



- 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여류 조각가 엘라 힐투넨(Eila Hiltunen)이 1967년 시벨리우스 사후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것이다.
- 은빛으로 빛나는 600개의 강철 파이프는 마치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 기념비와 시벨리우스 두상은 공원의 상징물이자 헬싱키를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다.

□ 원로원 광장(SENAATINTORI)

- 원로원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정면 설계한 헬싱키 대성당 투어미오키르코가 우뚝 솟아 있다. 돔을 축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디자인으로 처음에는 중앙에 돔이 하나뿐이었으나 앵겔이 죽은 뒤 다른 건축가의 손에 의해 작은 돔이 네



귀퉁이에 덧붙여졌다.

- 광장 동쪽은 관청, 서쪽은 헬싱키 대학 헬싱키 유리오피스토의 메인 빌딩이며 그 북쪽 옆의 돔이 있는 건물은 대학 도서관 유리오피스톤 크리야스토이다. 대성당과 함께 세 건물 모두 앵겔이 설계한 것인데 그중에서 대학 도서관이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꼽힌다.

□ 템펠리아우키오 교회 (TEMPELIAUKIONKIRKKO)

- 1969년에 세워진 현대의 건물로 티모(Timo)와 투오모 수오말라이넨(Tuomo Suomalainen) 형제의 작품이다. 도심에 있는 커다란 바위의 안을 파내고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된 독특한 건물이다.
- 내부는 다듬지 않은 거친 돌로 되어 있고, 지붕은 구리로 돔 모양으로 만들었다. 구리 천장은 콘크리트 들보로 바위와 연결되어 있으며, 구리 천장과 바위 외벽 사이의 공간을 투명한 유리로 처리해서 건물에 둥글게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내부의 바위는 다듬지 않고 거친 모습 그대로 두었으며, 바위 틈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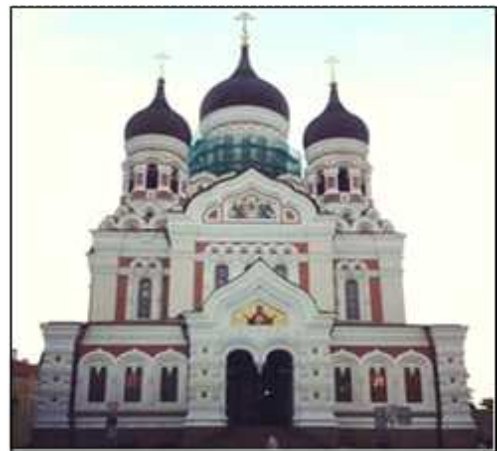
나. 탈린

탈린(에스토니아어: Tallinn, 러시아어: Таллин, 독일어: Reval 레발, 문화어: 딸린)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이며, 발트해의 핀란드만 연안에 있는 항만도시로서 공업의 중심지이다. 모터·수은정류기·라디오·굴착기·케이블·직물 등의 공장이 있다. 40만여 명이 살고

있다.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까지는 페리로 45분 거리에 있다. 통화는 유로화를 사용하며 언어는 에스토니아어와 핀란드어, 러시아어, 영어가 사용된다.

□ 알렉산더 넵스키 성당(Alexander Nevsky Cathedral)

- 탈린 성당 중 가장 크고 장엄한 돔 천장을 가진 성당으로 다양한 형태의 장식으로 유명한 러시아 정교회의 가장 성스러운 성당이다. 알렉산더 넵스키 성당은 에스토니아가 재정 러시아 치하에 있던 1900년에 Toompea 언덕에 건립되었다. 이 성당은 성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출신의 미하일 프레오브라즈헨스키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노브고라드의 왕자인 알렉산더 야로슬라비치 넵스키에게 헌정되었다. 넵스키 왕자는 1242년 4월 5일 페입시호 독에서 벌어진 독일과의 얼음전쟁 승리함으로써 독일의 동방 진출을 차단시킨 인물이다. 넵스키 성당의 종탑은 11개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탈린에서 가장 웅장한 종소리를 낸다. 11개의 종 가운데는 무게가 15톤으로 탈린에서 가장 큰 종도 있다. 예배 전에는 항상 종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성당 내부는 모자이크와 성상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 돔 교회

- 1219년 덴마크인들이 이곳에 진출한 이후 최초로 지은 성당으로 알려진 돔 성당(St Mary's Cathedral, Toomkirik)은 13C 초에 톰페아 언덕에 요새를 건설한 덴마크인들이 교회가 필요하여 목조 건물로 지었는데 지금의 건물은 15~16C에 지은 것이고 탑부분

은 1775년에 지어 졌으며 교회 내부에는 귀족 가문의 문장과 묘비 등이 있다고 한다. 탈린의 변천을 오롯이 지켜봐 온 소중한 건물이다. 현재 내부는 중세 시절 탈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길드들이 사용한 문장들을 전시해 놓아 탈린의 역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 구 시청사

- 북유럽에 있는 중세 시청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구시가지의 남쪽 광장에 있다. 13세기에 건립된 이 건물은 1402년부터 2년에 걸쳐 재건축되어 현재까지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정면이 광장을 향하고 있는 탈린 시청은 고딕 양식의 2층 건물로 외관은 석회암으로 마감되어 있다. 건물의 지붕은 급경사의 뾰족한 모양을 이룬 박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처마 위에는 용의 머리 형상을 한 물 홈통이 있다. 시청 건물의 창과 입구도 화려하게 장식 되어 있으며 특히 건물 동쪽에는 호리호리한 8각 첨탑이 있는데 이는 후기 르네상스 양식인 왕관 모양을 본 딴 것이다. 첨탑 꼭대기에는 ‘토마스 할아버지’ 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파수병 모양의 풍향계가 있다. 이 풍향계가 달린 첨탑이 시청 건물 중 가장 유명한 곳이며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상징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탈린시 의회의 회의는 물론 탈린의 중요한 행정 사항을 결정하던 시청 건물은 현재 콘서트 홀로 사용되고 있다

□ 시청 광장

- 광장은 시청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오랜 세기 동안 시장으로 이용 되어 왔다. 대대로 이 곳은 많은 축제가 열렸으며 죄인들을 처형 하는 장소로도 사용 되었다. 오늘날 이 광장은 도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여름에는 노천 카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수많은 거리 콘서트가 열리고 수공예품 전시장, 중세 풍의 시장이 열리는 장소로도 사용되어 지고 있다. 겨울에는 매년 크리스마스 장터가 열려 광장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한달 동안 시청 앞 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는데 이는 1441년 이래 계속된 전통이다. 중세 시대의 카니발을 재현하는 '구 시가지의 날' 행사 기간 동안 시청 앞 광장은 에스토니아의 전통을 엿 볼 수 있는 중심지로 탈바꿈 한다.



□ 톱페아 언덕

- 해안가 석회암 절벽에 위치해 있는 톱페아 언덕은 탈린 구 시가지의 중심으로 '최고봉'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13부터 14세기까지 건설되었다.
- 성곽은 두께 3m, 높이 15m로 도시를 감싸며 4km나 뻗어 있고, 성곽에는 붉은 빛 원뿔 모양의 지붕을 이루고 있는 탑이 46개 세워져 있다.



다. 옹살라

스톡홀름 북서쪽 65km 지점에 위치한다. 1270년 대주교좌의 소재지가 되었으며, 18세기까지 스웨덴의 수도로서 문화와 학술의 중심이 되었다. 성과 교회가 있으며, 13~15세기에 건립된 대성당에는 G.바사·C.린네·E.스베덴보리 등의 무덤이 있다.

1477년 창립된 옹살라대학은 학술적 업적으로 유명하며, 그 도서관에는 귀중한 고서와 희귀본이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 대주교관저, 빅토리아박물관, 린네박물관, 왕립과학협회, 천문대, 식물원 등이 있다. 1860년대에 철도가 부설된 후로 산업은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행하였으며, 주요공업으로는 인쇄업·기계제조·철공업 등이 있다.

□ 교육

-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으로 1477년에 세워진 주립대학이 있다. 당시 종교적인 논쟁 때문에 1510년에 폐교되었다가 1595년에 신학부와 철학부로 다시 출발했고, 1624년에는 구스타프 2세 아돌프 왕이 넓은 토지를 하사하여 이 학교의 재정기반이 마련되었다.
- 이 학교와 관련된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18세기의 식물학자 카를 폰 린네이며 그외 여러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유서깊은 대학이다. 대성당의 첨탑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식물학자 린네와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옹살라 대학의 본부로 200년간 사용된 구스타비아눔이다.
- 1663년에 세워진 이 건물에는 해부학 강의실, 고대 이집트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 북유럽의 유산을 전시한 박물관 등이 있다. 그 뒤쪽에 있는 네오 클래식풍 건물이 1880년에 세워진 현재의

대학 본관이다. 본관 남쪽에 대학 도서관인 카롤리나 레디비바가 있는데 스웨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4세기 율필라 주교가 성서복음을 고트어로 번역한 것중 유일하게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코덱스 아르겐테우스(Codex Argenteus)를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본부 건물(1887)에는 많은 예술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 **웁살라 대학교(Uppsala universitet)**

- 1477년에 웁살라 대주교 야코브 울브손(Jakob Ulvsson)의 주도로 북유럽 최초의 대학으로 설립하였다. 50여 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였으며 설립 당시 덴마크 지배하의 연합 왕국이던 스웨덴의 문화적 독립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설립 후 얼마 동안 재정 빈곤과 학교 내외의 분쟁으로 자주 운영이 침체되었으나, 구스타브 2세(1611~1632)가 강국 스웨덴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에도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면서 능력 있는 관리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스타브 2세가 1624년 대학 설립을 위해 넓은 토지를 기증하였고 1626년 대학헌장을 선포함으로써 대학으로서의 기초가 확립되었고 코펜하겐대학과 함께 북유럽의 학문적 중심이 되었다.



□ **웁살라 대성당(Uppsala domkyrka)**

- 스웨덴의 웁살라에 있는 웁살라 대학교와 피리스 강 사이에 있는 대성당이다. 루터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현재 대주교는 안체 잭클린, 주교는 래그나 페리세니우스이다.

- 13세기 후반에 건설 되었으며, 높이는 118.7미터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종교 개혁때 부터 오랜 기간동안 스웨덴의 대 관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곳의 예배당은 구스타브 1세 바사, 요한 3세 등을 포함한 스웨덴 군주들의 무덤으로 용도를 바꾸었다. 칼 폰 린네, 루드베크,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와 많은 군주들 또한 이곳에 묻혀있다.



□ 읍살라 성(Uppsala Castle)

- 1550년경에 구스타브 바자 왕에 의해 건설된 것이며, 거닐라 종은 4월 30일 읍살라 학생들의 봄 축하를 알리는 종으로 유명하다. 16 세기에 존 왕 3세의 두번째 아내인 Queen Gunilla에게 기증받은 것으로 본래는 예배당의 종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읍살라 성은 1540년대에 구스타브 바자(Gustav Vasa)에 의해 건설되었다. 스웨덴 왕들이 읍살라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하고 이 성에서 파티등의 공식 행사를 했다.



라. 스톡홀름

스웨덴의 수도로써 스웨덴의 남부 멜라렌호와 발트해를 잇는 강의 양쪽 연안과 여러 섬들로 구성되어 '북유럽의 베네치아'라는 칭호를 받기도 한다. 스톡홀름은 복지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많은 양로원과

보육원, 병원 등이 많다. 하지만 물가가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곳이다. 시가지의 모습은 중세의 분위기를 풍기는 구시가지와 현대적인 신시가지가 공존하며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도시답게 아름답고 깨끗한 느낌이 도시 전역에 퍼져있다.

□ 교육

- 스톡홀름은 교육의 천국이라 할 만큼 교육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일부 수익자 부담이나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는 학비는 물론 교재, 점심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는 International School과 영국학교가 있으며 Int 'l School은 각국의 상사주재원, 대사관 직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미국식 학교이다. 고등학교는 Sigtuna, 공립고인 Kungsholmen Gymnasium등이 있다.

□ 스톡홀름 시청사

- 언뜻 보면 외관이 교회처럼 보이지만 1923년에 건축된 스톡홀름 시청 건물이다. 무엇보다 매년 12월, 노벨상 시상식 후 축하 연회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블루 홀(Blue Hall)까지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유료 가이드 투어에 참여해야 한다. 가이드 투어의 백미는 역시 노벨상 시상식 연회가 열리는 황금의 방(Gyllene Salen). 무려 18만6000여 개의 금박 모자이크로 장식된 방이다. 100여 미터 탑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스톡홀름 시가지 모습도 장관이다. 그러나 탑은 5~9월 10:00~16:30 사이에만 개장하므로 시기를 잘 맞춰서 가야 올라가볼 수 있다.



□ 바사전함박물관

- 현존하는 배로는 가장 오래된 전함 바사 호가 유르고덴 섬의 스칸센 서쪽에 있다. 스웨덴의 국력이 막강하던 아돌프 구스타프 2세 시대에 건조된 이 전함은 독일의 30년 종교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1628년8월10일 왕궁 근처의 부두를 출발하여 첫 항해에 나섰으나



스톡홀름 항구에서 돌풍을 만나 수심 32m의 바닷속으로 침몰해 버렸다. 1956년 해양 고고학자 안데스 프란센이 침몰된 전함을 발견하여 1961년 4월 333년 동안 해저에 있었던 선체가 드디어 인양되었다. 바사 호는 17세기의 군함으로는 규모가 상당히 큰 배로 전체 길이 65m, 최대 폭 11.7m, 높이 50m이며 승무원이 437명에 이른다

□ 왕궁(Stockholm Palace)

- 라스탄 지구에 자리한 왕궁이다. 이탈리아의 바로크 양식과 프랑스의 로코코 양식이 결합된 건물로, 1754년 건립됐다. 1982년까지 왕과 왕비가 실제로 거주하던 곳이었지만 스톡홀름 외곽의 드로트닝홀름 궁전으로 이사하면서 지금은 외교 사절단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5~8월 사이 한시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일반에게 공개한다. 왕궁 내부를 보려면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한다. 역대 왕과 왕비의 왕관이 전시돼 있는 보물창고(Royal Treasury)는 빼놓지 말아야 할 볼거리. 하루 한번, 점심시간에 실시되는 근위병 교대식도 인기가 많다.



2 기타 참고자료

□ 스웨덴의 친환경 모범 사례

- 하마비(Hammarby) 시
 - 과거 항만시설 및 화학 폐기물 매립장 소재 지역으로 98년부터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 지역내 에너지, 폐기물, 상하수 통합 순환 시스템 구축(2015년 완공, 총 11,000 가구 입주 예정)
- 말뫼 플랙후센(Malmo Flagghusen) 지역
 - 04년 지자체, 개발업체 및 시민사회가 계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우수한 주거환경 건설
- 요테보리 고드스텐(Goteborg Gardsten) 지역
 - 97년 에너지 사용 절감, 대체에너지 활용 등의 개념을 도입, 구 주택단지 개조 (05년 World Habitat Award 수상)
- 벡훤(Vaxsjo)시
 - 바이오 에너지 활성화로 화석 연료 의존율 0% 달성
- Jamtkraft 열병합 발전소(웨스테르순드)
 - 재생 바이오연료를 사용(99%), 전력생산과 지역난방 동시 달성
- Norrmejerier 유가공 공장(우메오)
 - 유제품 가공 부산물 및 공정상 폐수 처리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자체 활용
- Preem 정유사(스톡홀름)
 - 잉여 열에너지 회수, 인근 3만 6천여 가구에 난방 공급(이산화탄소 배출량 152,400톤 감소)
- Renova 열병합 발전소(요테보리)
 - 요테보리 지역내 발생 쓰레기 활용, 지역난방 및 전력 생산
- SSAB 고강도 철강 생산(스톡홀름)
 - 고강도 철강 생산을 통해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Volvo 트럭공장(우메오)
 - 인근 하천으로부터 공급받은 지하수를 냉각수로 활용, 도장시설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추진
- Flexenclosure E-site 이동통신망(리드쉐핑)
 - 태양열과 풍력을 활용, 안정적 에너지 공급
- 제 4 메트로폴리탄 지역 (린쉐핑-노르쉐핑)
 - 린쉐핑(Linkoping) 및 노르쉐핑(Norrkoping) 지역의 지자체-산업-대학간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환경 친화적 산업체 구축

□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품

- 심장박동 조절기(Pacemaker) : Rune Elmqvist가 1958년 소형 건전지로 작동하는 심장 박동 조절기를 개발
- 3점식 자동차 좌석안전벨트(Three-Point Seat Belt) : ils Bohlin이 1959년 개발, 교통사고로부터 매 6분간 1명의 생명을 구하는 자동차 안전분야의 가장 주요한 발명
-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 Hakan Lans가 위성항법 위치확인시스템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
- 테트라 팩(Tetra-Pak) : Erik Wallenberg 연구팀이 1951년 발명
- 초음파(Ultra Sound) : 1950년대 Hellmuth Hertz와 Inge Edler가 공동으로 심장질환 분석을 위하여 개발
- 안전성냥(Safety Match) : Gustaf Erik Pasch가 1844년 독성을 함유한 황색 인을 무독성의 적린(red phosphorus)으로 대체하여 특허 획득
- 다이너마이트(Dynamite) : Alfred Nobel이 1866년 개발
- 지퍼(Zipper) : Gideon Sundbck이 1913년 발명

□ 노벨상

- 알프레드 노벨은 1895년 당시 900만불 상당의 재산을 기증, 매년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배분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김
- 그의 유언에 따라 해마다 물리, 화학, 생리의학, 경제, 문학, 평화 등 6개 부문에 걸쳐 노벨상이 수여되고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음.
- 시상분야 및 선정기관
 - 물리학·화학상 : 스웨덴 왕립 과학원(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 생리학·의학상 : 카롤린스카 의과대학교 노벨회의(The Nobel Assembly at the Karolinska Institute)
 - 문학상 : 스웨덴 한림원 (The Swedish Academy)
 - 평화상 :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3 기관 등 방문 수집자료 목록

| 연번 | 자료명 | 출처 | 면수 | 비고 |
|----|-------------------|-------------|----|-------------------|
| 1 | 헬싱키 청소년센터 브리핑(2종) | 헬싱키 청소년센터 | | pdf. ppt 파일 |
| 2 | 핀란드 복지제도 종합보고서 | 핀란드 한국대사관 | 17 | 종이 |
| 3 | 시설 홍보팜플렛 | 헬렌더 양로원 | 2 | 종이 |
| 4 | 시설 홍보팜플렛 및 지도 | 하마비 환경교육 센터 | 3 | 종이 |
| 5 | 시설 홍보팜플렛 | 사회적기업 바스타 | 38 | 종이 |

2015. 4월 발행

발행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

작성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모삼종 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노병철 주무관

홈페이지 : <http://www.assem.jeonbuk.kr>